**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3월 1일 금요일 |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 29호


# 이회창을 퇴출시켜야할 10가지 이유

## ≪구국의 소리≫방송 편집국 고발장 - 구국의 소리 주체91 2월 26일~27일

*1. 이회창은 민족을 배반한 친일친미사대매국역적이다*

*2. 이회창은 6.15남북공동선언을 반대하는 반통일분자이다*

*3. 이회창은 남북대결을 고취하면서 냉전논리를 펴는 호전광이다*

*4. 이회창은 형벌을 받아야할 살인범죄자이다*

*5. 이회창은 이 땅의 민주화를 반대하는 시대의 역행자이다*

*6. 이회창은 부정비리와 부정부패를 일삼는 썩은 개쪽이다*

*7. 이회창은 신의가 없고 배신을 잘하는 정치간상배이다*

*8. 이회창은 민생은 안중에 없는 대통령병자이다*

*9. 이회창은 지역감정과 씨족감정을 고취하면서*
*국민갈등을 조장하는 사기협잡배이다*

*10. 이회창은 정치대안도 없는 정치낙제생이다*

(고발장 전문 - 8면)

## 반민족행위자 708명 명단 발표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조사한 ≪일제하 친일 반민족행위자 1차 명단≫을 발표했다.

현역의원들의 친일파 명단 발표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총 708명의 언론, 사회, 종교, 문화계 등의 친일파 명단이 공개됐다.

새롭게 포함된 16명 가운데는 동아일보 창립자 김성수, 조선일보 창립자 방응모, 여성박사 1호 김활란, 시인 모윤숙, ≪봉선화≫ 작곡가인 홍난파, 서울음대 창설의 주역 현제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뒤 이어 ≪일제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족정기 의원모임 소속 임종석 의원(민주당)은 이 법률을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의 범주, 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관련 사항들이 규정되고, 민간차원에서 이뤄져온 친일파 진상규명 활동 지원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김희선 의원은 ≪이번 1차 명단 발표는 일제잔재 청산 작업을 해나가는 불쏘시개일 뿐≫이라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번 발표는 민족사 정립을 바라는 국민 여망의 반영으로, 국회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사청산에 나서기를 기대한다≫는 환영 논평을 냈다.


**반이회창**

**1** 이회창을 퇴출시켜야할 10가지 이유
**1** 단신 – 여야 의원, 반민족행위자 명단 발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노작**

**2**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1)

**세기와 더불어**

**4** 3장 6절 안창호의 시국대강연 (2)

**칭송**

**6** 조국
**6** 사랑과 믿음의 정치

**한국민족민주전선**

**7** 정신병자와 같은 넋두리를 또다시 늘어놓은 부시
**7**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 2월 27일
**8** 이회창을 퇴출시켜야할 10가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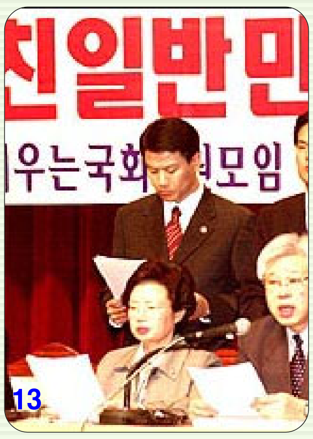
**조선중앙통신**

**10** 주체 91, 2월 27일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11** 주체연호와 태양절을 제정하시고
어버이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모시도록 영도

**아리랑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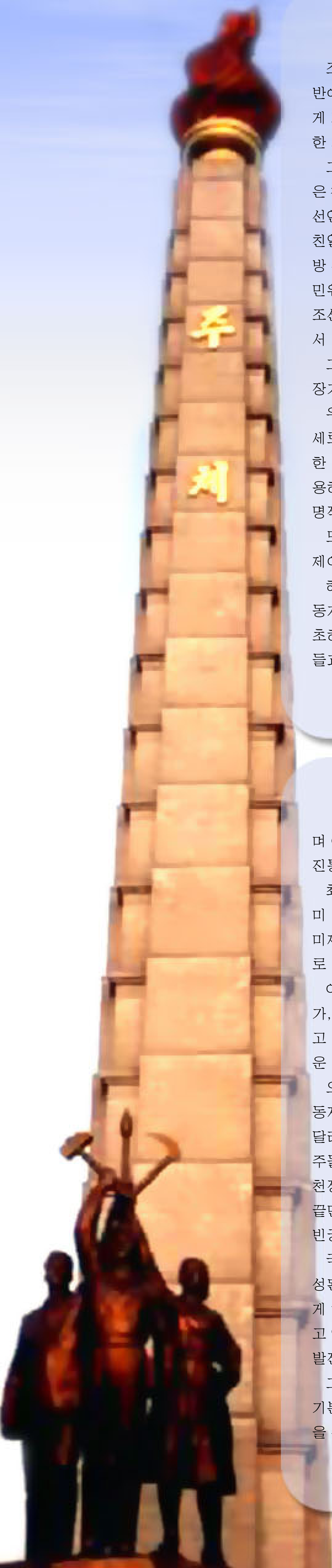

**12** 3.1봉기의 교훈과 현실
**12** 3.1운동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민족자주 선언대회
**12** 네티즌, 3·1절 맞아 거리로 나서 미국제품 불매운동
**13** 여야 의원, 반민족행위자 1차 708명 명단 발표
**13** ≪우리 시대의 3.1운동≫ 현장을 찾아
**14** ≪통일연대 불참 결정은 옳아≫
**14** 서울지역 학생회장들, 금강산 관광 진행
**15** 정가에 ≪박근혜 폭탄≫ 터져
**15** 이회창 집권하면 내각제 개헌할 것

**운동강좌**

**13** 전략적 통일전선과 민족해방혁명의 이론문제 (4)

#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1)

**주체44(1955)년 4월**




조선인민은 일제의 장구한 식민지통치 기반에서 해방된 때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며 자기 조국의 독립과 번영을 위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길에 들어섰다.

그러나 우리 조국 남반부에 상륙한 미군은 첫날부터 일제통치기구를 재생시키고 조선인민의 극악한 원쑤인 지주, 예속자본가, 친일친미파, 민족반역자들을 규합하며 해방 직후 인민들의 창의에 의하여 수립된 인민위원회들과 애국적 민주역량을 탄압하며 조선인민의 통일독립국가 건설을 반대하면서 식민지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조선혁명은 복잡성과 간고성과 장기성을 띠게 되었다.

우리 당은 우리 조국에 조성된 이러한 정세로부터 출발하여 공화국북반구에서 위대한 쏘련군대가 지어준 유리한 조건들을 이용하여 조국통일의 기초로 되는 강력한 혁명적 민주기지를 창설하는 길에 들어섰다.

모든 혁명에 기본문제는 주관에 관한 문제이다.

해방후 우리 당의 영도 밑에 북반부의 노동계급은 근로농민과의 튼튼한 동맹에 기초하여 모든 반제국주의적, 반봉건적 계층들과의 광범한 통일전선을 결성하고 인민정권을 수립하였다.

인민 자체가 자기 손으로 조직한 인민정권은 가장 선진적 계급인 노동계급을 주도적 역량으로 하고 각계각층 애국적 민주역량을 자기 주위에 집결하면서 외래 침략세력을 반대하며 조선인민의 극악한 원쑤인 친일친미파, 민족반역자들과 지주 및 예속자본가들에 대하여 독재를 실시하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민주제도를 계속 공고히 할 기본임무를 규정하고 전체 인민으로 하여금 그 실천을 위하여 투쟁하도록 하였다.

인민정권은 우리 당의 영도 밑에 각계각층의 지지를 받으면서 일본제국주의의 잔재세력을 숙청하고 제국주의세력을 부식하던 지주계급의 토지를 몰수하여 광범한 농민들에게 무상분여하는 역사적인 토지개혁을 실시하였으며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소유였던 산업, 철도운수, 체신, 은행 등을 몰수하여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켰으며 노동법령, 남녀평등권법령, 농업현물세에 관한 법령 등을 채택하였으며 사법 및 교육기관의 민주화를 실시하였으며 선진적 민족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인민무력을 창건하였다.

이리하여 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적 민주혁명의 과업은 완전히 수행되었으며 북반부인민들은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점차적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을 위한 북반부인민들의 투쟁은 미제와 리승만도당이 도발한 3년간의 전쟁으로 인하여 지장을 받았으며 이로 말미암아 그 투쟁은 오랜 시일을 요하게 되었다.

전쟁은 우리 인민이 창설한 민주제도와 우리 인민에게 가장 가혹한 시련으로 되었다.

북반부에서의 민주혁명의 승리와 경제건설에서 북반부인민들이 달성한 성과들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 리승만 매국도당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우리 나라의 혁명원천지인 북반부 민주기지를 보위한 위대한 역량으로 되었다.

그러나 해방 1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까지 우리 나라는 통일되지 못하고 국토와 민족은 양분되어 있으며 남반부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되고 있다.

미제침략자들은 아직도 남조선에 남아 있으며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적극 반대하면서 계속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조성하며 이승만 괴뢰군대를 증강하는 한편, ≪북진통일≫을 떠벌이고 있다.

최근 미제와 이승만 역도가 조작한 ≪한미 군사경제원조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미제의 식민지 약탈정책은 더욱 노골적으로 감행되고 있다.

이승만역도는 ≪귀속재산≫을 외국자본가, 예속자본가, 모이간상배들에게 방매하고 있으며 남조선에서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투자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오늘 남반부의 산업은 거의 폐쇄되고 노동자들은 혹심한 노예적 노동과 실업에 시달리고 있으며 농촌은 황폐화되었으며 지주들의 착취는 더욱 혹심하여 지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으며 인민들은 털끝만한 자유도 가지고 있지 못하며 기아와 빈궁에 허덕이고 있다.

국토의 양단, 민족의 분열과 남반부에 조성된 이러한 정세는 전체 남반부인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고 있으며 단일한 우리 나라의 정상적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계단에 있어서 우리 혁명의 기본임무는 미제국주의침략세력과 그 세력을 부식하며 그 동맹자로 되고 있는 남반부의 지주, 예속자본가, 친일친미파, 민족반역자들을 타도하고 남반부인민들을 제국주의적 및 봉건적 압박과 착취에서 해방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주의적 통일과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는데 있다.

남반부에 있어서 혁명의 동력은 노동계급을 비롯하여 그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인 농민과 미제국주의 및 봉건세력을 반대하는 광범한 소자산계급이며 적지 않는 민족자본가들까지도 반제반봉건적 투쟁을 같이 진행할 수 있다

혁명의 적은 미제국주의침략세력과 그 세력을 부식하며 그 동맹자로 되고 있는 남반부의 지주, 예속자본가, 친일친미파, 민족반역자들이다.

만일 세계반동세력의 괴수인 미국의 간섭이 없었더라면 조선인민은 이미 오래전에 국내반동세력을 타도하고 전조선적 범위에서 반제반봉건적 민주혁명의 과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하였을 것이다.

우리는 미제국주의자들을 우리 나라에서 몰아내지 않고는, 그의 주구 이승만도당을 숙청하지 않고는 혁명의 과업을 완수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혁명은 한편으로는 반제국주의적 민족해방의 과업을 수행하며 다른 편으로는 남반부에서 아직 지주의 압박과 착취를 받고 있는 광범한 농민들을 해방 할 반봉건적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오늘 남반부의 제조건, 특히 남반부가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되고 있는 형편에서 우리 혁명은 간고하고도 장기성을 띤 전민족적 투쟁을 통하여 완수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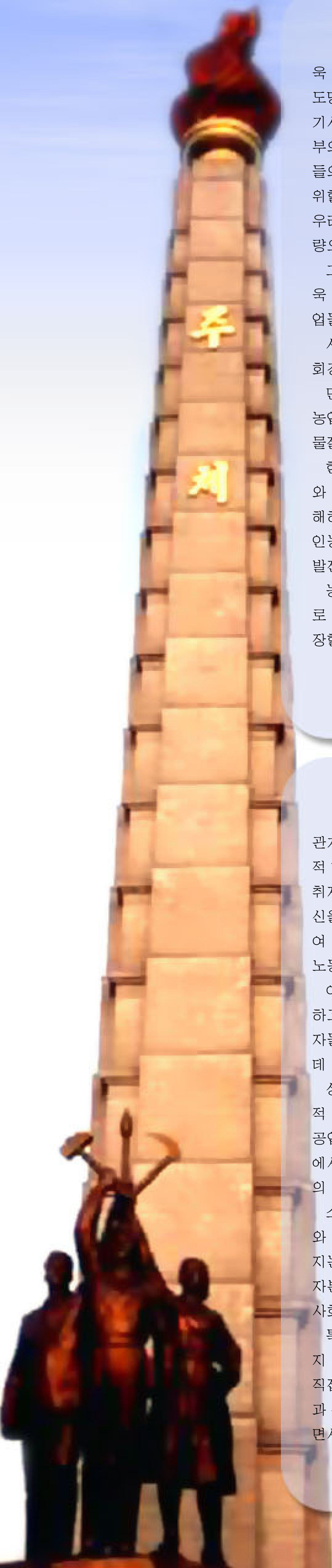
우리는 미제국주의침략세력을 물리치며 그 사촉하에 있는 이승만 매국역도를 타도하고 혁명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모든 혁명역량을 집결하여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오늘 쏘련을 비롯한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적 단결은 불패의 것으로 강화발전되는 반면에 제국주의 진영은 그 자체의 내부모순들과 호상간의 알력으로 인하여 점점 더 쇠약하여 가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국제주의기치에 더욱 충실하며 제국주의의 멸망을 촉진하기 위하여 어떻게 자기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하며 동원하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 당과 인민정권과 사회단체들을 더욱 강화하며 남북반부인민들의 모든 애국적, 민주주의적 역량을 우리 당 주위에 더

**국토의 양단, 민족의 분열과 남반부에 조성된 이러한 정세는 전체 남반부인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고 있으며 단일한 우리 나라의 정상적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계단에 있어서 우리 혁명의 기본임무는 미제국주의침략세력과 그 세력을 부식하며 그 동맹자로 되고 있는 남반부의 지주, 예속자본가, 친일친미파, 민족반역자들을 타도하고 남반부인민들을 제국주의적 및 봉건적 압박과 착취에서 해방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주의적 통일과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는데 있다.**




욱 튼튼히 단결시켜 그들을 미제와 리승만 도당을 반대하는 전민족적 혁명투쟁에로 궐기시켜야 하며 우리 혁명의 원천지인 북반부의 민주기지를 비단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의 침략을 반대하며 공화국북반부를 보위할 강력한 역량으로 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나라의 통일독립을 쟁취할 결정적 역량으로 전변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북반부에서 혁명을 더욱 전진시켜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위한 과업들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은 북반부 사회경제발전의 필연적 요구로 된다.

민주기지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공업과 농업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더욱 향상시켜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 남아 있는 소상품경리와 자본주의적 경리는 생산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에서 지배적인 개인농민경리는 농업의 급속한 복구와 장래 발전에 커다란 장애로 되고 있다.

농민경리와 개인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지 않고서는 생산력의 발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인민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으며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할 수 없다.

북반부와 인민경제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영경제와 협동경제는 사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소상품경리와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경리에 결정적 영향을 주면서 필연적으로 그것들을 사회주의적 개조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계단에 있어서 공화국북반부의 사회경제적 실정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사회발전의 필연적 요구로서 제기하고 있다.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은 남반부인민들, 특히 노동자, 농민과 광범한 소자산계급에 커다란 추동력으로 될 것이며 심지어 남반부의 일부 민족자본가들과의 통일전선의 결성을 돕는 힘으로 될 것이다.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성과는 비단 조국통일을 쟁취하는 결정적 역량으로 될 뿐 아니라 조국통일이 실현된 이후에 남반부경제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며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보장함에 있어서도 강력한 물질적 담보로 될 것이다.

## 혁명적 민주기지의 강화와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임무

### 1) 공화국북반부의 경제형태들과 계급적 관계

해방후 민주주의적 변혁이 실시된 결과 북반부의 사회경제구성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현계단에 있어서 북반부의 사회 경제형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사회주의적 경제형태이며, 둘째는 소상품경제형태이며, 세째는 자본주의적 경제형태이다.

사화주의적 경제형태는 국영경제와 협동경제로써 구성된다. 오늘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적 경제형태는 지도적 역량으로 되고 있으며 특히 공업에서 그 비중은 압도적 우세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 전체 공업생산에서 국영경제는 약90%이며 협동경제가 7~8%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경제형태에서 사람들의 호상관계는 착취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동지적 협조와 원조이며 그들은 과거와 같이 착취자들의 치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조국의 융성발전을 위하여 자유롭고 영예로운 노동을 하고 입으며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분배를 받고 있다.

여기에서는 사회주의경제법칙들이 작용하고 있으며 생산은 부단히 장성하는 근로자들의 물질적,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복무하면서 계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상품경제형태는 농촌경리에서 아직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개인농경리와 도시수공업경리로써 구성된다. 과도기의 현계단에서 소상품경제형태에는 우리 나라 인구의 과반수가 망라되어 있다.

소상품생산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와 개인노동에 기초하고 있다. 소부르죠아지는 그의 이중성으로 인하여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두 길 사이에서 동요하나 이는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 수 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소부르죠아지는 토지 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의 혜택을 직접 받았으며 인민민주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우리 당 및 정부정책의 정당성을 체험하면서 인민경제에서의 사회주의적 경제형태의 급속한 장성에 따라 자원적으로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개조되어가고 있다.

자본주의적 경제형태는 도시의 자본주의적 개인상공업과 농촌의 부농경리로써 구성된다.

이는 공화국북반부에 아직 남아 있는 착취형태이다.

이 경제형태에서는 자본주의경제법칙들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작용하고 있다.

북반부인민경제에서 자본주의적 경제형태는 사회주의적 경제형태에 비하여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공업부문에서 전체 사적 소유의 비중은 공업생산의 2~3%밖에 되지 않으며 그나마도 대부분 소규모적인 기업체들로서 정미, 타면 등 부차적인 부문에 국한되어 있다.

북반부인민경제에서 사회주의적 경제형태가 장성 발전함에 따라 자본주의적 경제형태는 점차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되어 가고 있다.

오늘 북반부농촌에서는 소상품경제형태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적으나 많으나 간에 농민들의 계급분화가 진행되며 부농이 발생하며 장성하고 있다.

이들은 계절적 혹은 고정적으로 고용노력을 채용하며 곡물시장을 통하여서와 현금 및 각종 현물에 의한 은폐된 고리대적 방법과 농기구, 역축 등의 이용대가를 고율로 받는 방법으로써 빈농민들을 착취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국북반부에서 토지개혁이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밑에서 실시한 것만큼 부농의 경제적 기초는 대단히 미약하다. 특히 농촌에서의 협동조합의 급격한 장성에 따라 부농들의 착취대상은 없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그들로 하여금 자진하여 농업협동조합에 망라되게 할 것이며 점차 근로농민으로 개조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농촌에서 아무러한 계급투쟁도 없이 순조롭게 실현될 수는 없으며 적들의 일정한 저항과 투쟁 속에서 진행될 것이다.

과도기적 성격을 띤 공화국북반부 경제구조의 기본특성과 북반부 사회경제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은 이러하다. 이로부터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이 규정된다.

(내일 계속됩니다)

1권 제3장

## 길림시절


1. 선진사상의 탐구
2. 상월선생
3.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4. 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5. 단결의 시위
6. 안창호의 시국대강연
7. 3부통합
8. 차광수가 찾은 길
9. 왕청문의 교훈
10. 철창속에서

# 6. 안창호의 시국대강연 (2)

강연장의 분위기를 보니 대부분의 군중이 그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은 것 같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연설에 감동되어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다. 물론 그의 강연내용은 일구일언이 다 애국의 정신으로 관통되어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발언에서 민중의 투쟁의욕을 거세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을 발견하고 실망하였다. 총체적으로 볼 때 그의 주장에는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점들이 있었다. 각자가 자기를 수양하고 인격을 높이며 그에 토대하여 민족의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안창호의 주장에는 나도 동감이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을 세계적으로 정신적 자질이 가장 낮은 민족이라고 한 그의 견해와 실력양성을 위한 개량주의적 방법론에는 도저히 찬성할 수 없었다. 실력양성은 어디까지나 독립투쟁을 추진시키는 하나의 과정으로 되어야지 그 자체가 혁명전체를 대신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안창호는 독립투쟁을 실력양성으로 대신하려고 하였다. 실력이 양성된다고 하여 독립투쟁이 저절로 진척되는 것은 아닌데 그는 민족의 력량을 어떻게 조직하고 그것을 종국적인 승리의 길로 어떻게 동원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민족해방투쟁의 기본형태로 되어야 할 폭력투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입에 담지 않았다.

만주에서 독립의 기초로 될 수 있는 산업을 진흥시킨다는 것도 역시 문제가 있었다. 국권을 잃은 민족에게 발전소를 건설하라고 차관을 줄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는가. 온 강토가 일제의 손아귀에 들어갔는데 설사 렬강들이 차관을 준다 하여도 이국땅에서 어떻게 발전소를 세우고 벼농사를 착실하게 할 수 있겠는가. 또 일제가 조선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가만 내버려두겠는가.

나는 강연을 듣다못해 더 참지 못하고 안창호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종이에 써서 들이대였다.

– 산업과 교육을 진흥시켜 조선민족의 실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했는데 나라를 일제놈들에게 통채로 빼앗긴 조건에서 그것이 이루어질수 있는가?

– 우리 민족을 정신수양이 낮은 민족이라고 했는데 어떤점이 그러한가?

– 연사가 말하는 렬강이란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인데 과연 우리가 그들을 본받아야 하는가? 또 우리가 그들의 ≪원조≫에 의해서 독립을 가져올수 있는가?

질문쪽지는 앞에 앉은 학생들과 사회자를 거쳐 안창호에게 전달되였다. 반발심에 못이겨 단호하게 서면질문을 들이대기는 하였으나 막상 사회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학생들이 앉아있는 쪽을 주시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사실 그때의 내 심정은 복잡하였다. 그 질문때문에 강연중에 있는 연사가 불쾌한 자극을 받게 된다면 안창호를 숭배하고 있은 독립운동자들과 수백명의 청중들에게 큰 실망을 주게 되지 않을가 하는 우려도 생기였다. 안창호의 강연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게 되면 그의 강연을 위해 남다른 성의를 보인 오동진도 서면질문의 장본인인 나를 고깝게 생각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런 결과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였다. 내가 안창호에게 서면질문을 들이댄것은 그가 우리의 질문을 받고 잠간만이라도 자기의 주장을 검토하여 민족의 자존심과 자주정신에 배치되는 유해로운 사상을 그 이상 더 먹이지 말았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였다. 또한 독립운동의 대선배로 존경받는 안창호에게서 그가 청중에게 채 말하지 않은 독립운동의 새로운 지침이나 방략을 듣고싶은 욕망을 억누를수 없었기 때문이였다.

그런데 사태는 내가 예상한 것보다 크게 번지였다.

안창호는 쪽지의 글을 한참동안 내려다보고나서 사회자에게 무엇인가 몇마디 물었다. 후날 손정도에게서 말을 들으니 그날 안창호는 사회자에게 질문쪽지에 김성주라는 서명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아는가고 물었다고 한다.

그처럼 도도한 기상을 가지고 장내를 쥐락펴락하던 안창호의 연설이 그만 김이 빠져버리였다. 안창호는 조금전까지 일사천리로 펼쳐나가던 강연을 성급하게 마무리짓고 연탁앞에서 황황히 물러섰다. 연사는 매우 심각하게 질문을 받아들인 것 같았다. 좀 자극이나 받으라고 그런 질문을 했는데 안창호자신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고 강연을 중도에서 스스로 포기해버린것이였다.

실망한 청중은 도산선생이 왜 갑자기 저렇게 주접이 드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출입문쪽으로 밀려나갔다.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길림독군서에서 수백명의 헌병과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강연회장에 불시에 달려들어 300여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체포했던 것이다. 연사인 안창호는 물론, 현묵관, 김리대, 리관린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자들이 한꺼번에 무리로 붙잡혀 경찰청에 구금되었다. 이 대검거사건을 조종한 것은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구니도모였다. 안창호의 길림도착과 때를 같이하여 봉천에 나타난 구니도모는 중국헌병사령관 양우정에게 수백명의 조선공산주의자들이 길림에 모였으니 이를 체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양우정의 명령에 따라 길림독군서의 경찰들과 헌병들은 구니도모의 조종밑에 조선사람들의 가택을 수색하는 한편 대동공창에 달려들어 류례없는 대검거작전을 벌이였다.

물산장려운동 포스터

우리는 안창호가 비록 강연은 잘하지 못했지만 적들이 그도 포함하여 수백명의 조선사람들을 붙들어간데 대해서는 치솟는 격분을 누를수 없었다. 더구나 서면질문끝에 강연이 중단되고 강연이 중단되는 동시에 안창호게 체포되어가니 나로서는 이런 련쇄방응의 책임이 마치 서면질문에라도 있는듯한 느낌까지 들어 괴로운 생각을 털어버릴수가 없었다.

중국 동북지방을 통치하고 있던 장작림군벌은 ≪미쯔야협정≫으로 일본과 손을 잡고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반일독립운동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었다. 이 협정은 만주지방에서 조선민족해방투쟁의 근원을 없애기 위한 악질적인 협정이였다. 이 협정에 의하여 조선인애국자들을 체포하는 졸개들에게는 상금까지 주었다. 중국의 일부 반동관헌들은 상금을 타먹으려고 허위밀고까지 하였다.

대동공창에서 벌어진 집단적인 검거소동도 역시 장작림군벌이 일제의 사촉을 받아서 감행한 반동적인 폭압행위였다.

우리는 즉시에 ≪ㅌ,ㄷ≫성원들의 회의를 열고 붙잡힌 사람들을 석방시키기 위한 대책을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그 걸음으로 독립운동자들을 찾아가 그들과도 체포된 사람들을 빼내올 방법을 의논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넋을 잃고 앉아있을 뿐 속수무책이였다. 우리는 모두 단결하여 길림독군서에 압력을 가하면 안창호선생은 물론, 체포된 사람들을 다 빼내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군중의 힘을 동원하는 것이 제일 위력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독립운동자들은 맨주먹밖에 없는 자네네가 무슨 재간으로 그 무지막지한 독군서놈들을 굴복시키겠는가, 군중

물산장려운동 계몽행렬

이 나서서 떠드는 것보다는 돈이나 뢰물이 더 맥을 추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대중의 힘을 잘 믿지 않는 타성이 그때에도 나타났다.

나는 돈으로 통하지 않는 것도 군중의 단결된 힘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그들을 꾸준하게 설복하였다. 그런 다음 손정도가 운영하는 길림례배당에서 시내의 독립운동자들과 조선인유지들, 청소년학생들이 참가한 군중집회를 가졌다. 우리는 집회참가자들에게 독군서가 왜놈들과 한짝이 되어 조선의 애국자들과 무고한 동포들을 무리로 붙잡아갔다는 것을 설명한 다음 그들이 이제 몇푼의 돈을 받아먹는 대가로 체포해간 사람들을 일본경찰에 모조리 넘겨줄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였다. 조선의 애국자들이 왜놈들 손에 넘어가는 날이면 무자비한 처형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 겨레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조선사람들은 한마음한뜻으로 단결하여 애국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중적 석방운동에 떨쳐나서자고 호소도 하였다.

우리가 안창호에 대한 석방운동을 벌이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리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고개를 기웃거리었다. 민족주의자들은 물론,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는 사람들과 지어는 우리의 영향을 받고 있은 청년학생들속에

➡

百餘名 講演會場包圍
百餘名 各處住宅搜索
安昌浩氏外二百名同胞全檢擧
婦女兒童 一時監禁

도산 안창호의 강연회 참가자
체포사건을 소개한 동아일보

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안창호의 리론에 대하여 서면 질문까지 들이댄 사람들이 왜 이번에는 그를 구원하지 못해 그렇게 애를 쓰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안창호의 사상을 문제시하는 것이지 안창호란 인간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안창호도 조선사람이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애국지사인데 어떻게 그를 구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고 설복하였다. 나는 그때 수난당한 조선민족은 어려운 때를 당하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는 대의명분을 앞에 내세웠다.

내가 안창호의 강연을 반박한 것은 그들이 사대주의적이고 민족허무주의적이며 개량주의적인 립장에서 벗어나 조국을 광복하는 성스러운 싸움에 더 적극적으로 투신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민족주의자들과 사상투쟁을 한 것은 그들을 타도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깨우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반일의 기치아래 묶어세우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안창호석방을 위한 군중집회가 있은 다음 길림의 담벽과 전주대들에는 ≪중국경찰이 근거없이 조선동포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놓고 박해한다.≫, ≪중국관헌은 일제의 간계에 속지 말라!≫, ≪감옥에 갇힌 조선동포들을 하루빨리 석방하라!≫는 내용의 삐라와 격문들이 나붙었다.

우리는 중국의 각 신문사들에도 글을 써보내여 사회여론을 환기시켰다. 길림시내의 청소년들과 독군서에 몰려가 감금된 사람들을 석방하라고 웨쳤다. 어떤 날에는 독군서앞에서 시위도 벌이였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중국의 반동군벌이 체포해간 조선의 독립운동자들을 일제의 손에 넘겨주지 못하게 하려고 있는 힘을 다하였다.

독군서는 군중의 압력에 못이겨 20여일만에 안창호를 비롯한 구속자전원을 석방하였다. 긴장된 투쟁끝에 얻어진 안창호의 석방은 나를 몹시 기쁘게 하였다. 우리는 자유로운 몸이 되어 동료들의 곁으로 돌아온 안창호를 만나려고 독립운동자들을 찾아갔다. 나는 그가 질문에 담겨진 우리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리해하기를 은근히 기대하였다.

그러나 안창호는 감옥에서 나오자 바람으로 총총히 길림땅을 떠나가버렸다. 그가 어떤 심정으로 상해에 돌아갔는지 똑똑히 알 수 없지만 나는 그가 정신을 가다듬고 새로운 기분으로 길림을 떠났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애국자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최후의 순간까지 모든 시련을 감당해낸 그후의 그의 생활이 그것을 증명해주었다.

안창호가 길림을 떠난후 나는 한번도 그를 만나지 못하였다.

10여년이 지난후 우리가 백두산쪽에서 무장투쟁을 할때 안창호는 일제놈들에게 체포되어 감옥에서 얻은 병으로 최후를 마쳤다. 나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평생을 민족의 계몽과 단합에 바쳐온 안창호가 독립의 날을 보지 못하고 일찌기 떠나간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별스럽게 맺어졌던 안창호와의 인연이 그것으로 완전히 끊어져버린것은 아니었다. 안창호는 갔지만 그의 녀동생 안신호가 해방후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였다.

해방후 조국에 개선한 나는 국내에서 활동하던 애국지사들을 통하여 안창호의 누이동생이 남포방면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 당시 남포지구에서는 김경석동무가 파견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안신호를 찾을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며칠후 남포에서 안신호를 찾았다는 통보가 올라왔다. 김경석동무에게 전화로 그 녀자의 경향이 어떤가고 물으니 그는 밤낮 성경책만 끼고 다니는 녀자인데 독실한 신자 같다고만 대답하였다.

나는 안신호가 이름난 애국렬사의 동생이기 때문에 종교를 믿어도 애국심만은 있을 것이니 당적 영향을 주면서 잘 이끌어보라고 김경석동무에게 말하였다.

김경석동무는 알겠다고 대답하면서도 별로 시답지 않아하였다. 신자들이라면 덮어놓고 색안경을 끼고보는 때여서 우리가 그렇게 누누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을 경원시하는 폐단이 쉽사리 없어지지 않고 있었다.

몇달후 김경석동무는 나에게 안신호가 입당하였다는 것과 그가 성경책속에 당증을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새조선 건설에 헌신분투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안창호의 애국혼은 결코 지하에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안신호의 모습을 볼때마다 우리는 독립인사로서의 안창호의 파란많은 일생을 생각했고 생전에 그가 민족을 위해 바친 로고를 더듬어보며 감개무량해지는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일생을 반공으로 살아온 김구는 남북련석회의때 북반부에 들어와 안신호를 만나보고 놀랐다. 공산주의자들이 상해림시정부 거물의 누이동생을 중앙녀맹부위원장으로 등용시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모양이다. 안신호는 그의 젊은 시절의 애인이며 약혼녀였다.

안신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곧 안창호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것은 또한 리념이나 신앙을 초월하여 민족이라는 하나의 울타리속에서 애국애족의 뉴대에 의해 혈연적으로 련결되어있는 독립운동의 모든 선배들에 대한 우리의 례절이며 인사이기도 하였다.

(끝)

송시

# 조국

사람들은 누구나 조국을 생각할때
나서자란 고향집을 그리더라
어린날 뛰놀던 뜨락
파아란 하늘이 추억속에 어려오는
정갈한 박우물을 눈앞에 보더라

그때문인가
백두의 깊은 계곡
소백수 푸른 기슭에 서있는
한 채의 귀틀집앞에서
내 지금 조국을 생각하는 것은

뜨락에는 설레는 천고의 밀림
그 너머엔 눈덮인 아득한 광야
우리 혁명이 헤쳐온
준엄한 만리길을 한몸에 섬기고
숭엄히 솟아 있는 백두고향집

아- 간고한 전투와 행군,
모진 눈보라와 광풍을 이기며
기개 떨친 조선의 담력
이 집이 소중히 안고 있구나
이 나라 민족사는 저 준철서린
추녀밑으로 굽이쳐간
영광찬 그 연대로 하여 위대해졌나니

청청한 정기가 피여나는 소백산일까
서리꽃 하이얀 밀림속으로
조용히 울려간 자장가소리
여기서 조선의 넋이 자랐다
여기서 해가 뜨고 이땅의 새 세기가 밝았다

그래서 저 산발너머 싸움길 떠나간 투사들
설사 다시 못 올 준엄한 길도
이 귀틀집을 돌아보며 기꺼이 갔던가
저 들창너머 창창히 열린 조선의 푸른 하늘을
그리도 환희에 넘쳐 안아보았던가

내 오늘도 이 집앞에서
자그마한 들창가에
사시절 이땅의 정기로 피어나는
2월의 봄빛을 안고
승리한 혁명의 미래를 바라보나니

아!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백두밀영의 고향집이여
정녕 너는 우리에게 조국과 같아라
나에게도 먼 후손들에게도
폭풍에도 꺾이지 않는 넋이 있고
세계에 자랑 떨칠 존엄을 주는
위대한 우리의 조국이어라

흠모

# 김정일동지께서 베푸시는 정치가 위력한 것은 사랑과 믿음의 정치이기 때문이다

### 러시아 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이 강조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러시아 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싸쥐 우말라또바가 조선방문인상을 발표하였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35돐에 즈음하여 러시아 평화 및 통일당기관지 ≪꼴로스 에진스뜨바≫제18호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꾼들과 대화하시는 사진을 모시고 ≪한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가능한가?≫라는 제목을 달고 싸쥐 우말라또바의 담화내용을 옹근 한면에 걸쳐 게재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을 소개하면서 그이께서는 어떻게 하면 나라를 번영하게 하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겠는가 하는데 대해서만 생각하신다고 말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이께서는 놀라울 정도로 검박하실 뿐 아니라 비상한 담력과 판단력, 확고한 이념을 지니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자기 나라와 인민의 이익과 명예를 철저히 고수하시고 그 어떤 압력이나 위협공갈에도 끄떡하지 않으시며 그 누구앞에서도 굽신거리지 않으신다. 그이께서는 자기 인민, 자기의 힘을 믿으시기에 그 누구도 조건부를 내걸지 못하게 하신다. 그는 **김정일**동지께서 베푸시는 정치가 위력한 것은 그것이 노동자들과 농민들,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조선방문에서 받은 인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어디에 가나 놀라울 정도로 깨끗한 것이였다. 조선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였다. 그들은 도시밖에 있는 도로들을 포함하여 차도와 인도들을 자그마한 오물이나 풀한대 없이 깨끗이 거두고 있다. 가는 곳마다에서 자기 거리와 마을을 깨끗이 거두고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자기 조국, 자기의 사상에 끝없이 충실한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자립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는 우리 인민이 전후 자기의 힘과 자원에 의거하여 공업을 복구하고 도시들을 건설하고 오늘은 인공지구위성까지 쏴 올린 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것은 하나의 기적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우리 인민이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과 자연재해 속에서도 자신이 선택한 길을 따라 나아가고 있으며 새로운 성과들을 이룩하고 있는 사실들을 열거하면서 이것은 사회주의 건설이 한 나라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 인민이 국가로부터 살림집을 보장받으며 세금을 모르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을 소개하였다.

그는 우리 나라에서 어린이들에게 커다란 배려가 돌려지고있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표시하였다.

그는 조선에는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가 있으며 이 두 가지 소유형태가 성과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나라의 국방력강화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신다. 그이께서는 군대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고 인민이 노예로 된다고 보신다. 남녀청년들에 있어서 군사복무를 하는 것은 영예로운 것으로 되고 있다. 군대에서는 체육을 하고 지식수준을 높이며 예술창작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보장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악기를 다루고 있다. 당과 국가 수위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 많은 것이 좌우된다.

정열과 젊음이 넘쳐나시고 그 무엇에나 조예가 깊으신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보고를 받지 않고도 정세를 다 알고 계신다. 그이께서는 공장과 탄광, 농촌, 대학 등 그 어디나 안 가시는 데가 없다.

그는 우리 나라에서 당일꾼들이 현장에 내려가 인민들과 함께 일도 하며 그들을 교양하고 도와주고 있는 사실에 감명을 표시하였다.

끝으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 누가 나에게 자유가 어디에 있는 가고 묻는다면 그것은 조선에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 자기 자식들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일할 권리가 보장되고 살림집이 보장되고 있으며 연로보장이 담보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자유가 아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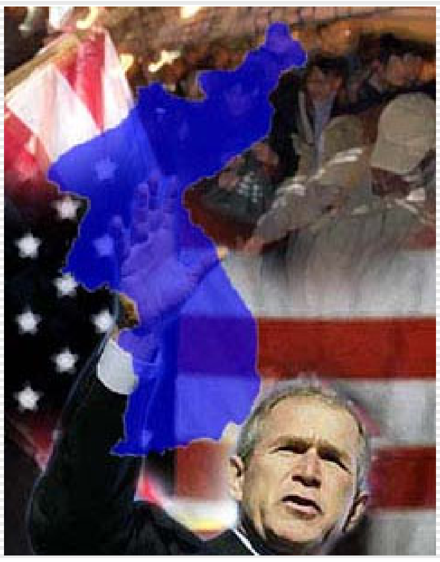
우리는 무엇이나 조선 벗들에게서 배워야 한다.

# 정신병자와 같은 넋두리를 또다시 늘어놓은 부시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91 2월 27일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부쉬는 26일 ≪미국의 소리≫방송 60주년을 맞아 워싱턴의 ≪미국의 소리≫방송본부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북을 언론의 자유가 없는 폐쇄체제라느니 뭐니하면서 이북 체제를 또다시 악랄하게 비난했습니다. 이것은 정신병자의 넋두리로써 이북을 동경하고 있는 내외의 이목을 딴데로 돌려보려는 교활한 술책의 일환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북에서는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는 물론 언론의 자유가 법적으로 확고히 보장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녹화물을 보고 또 보고싶은 방송들을 시청하고 있을뿐 아니라 각종 장르의 글을 써서 신문, 잡지에 내고



있습니다. 이런 몇가지 사례만봐도 이북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확고히 보장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따져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여론의 대변자이며 조직자인 언론의 사명은 진실을 말하고 전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언론들은 당국의 탄압이 두려워 권력에 아부굴종하면서 국민의 의사를 외면하고 진실을 왜곡보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쉬가 언론의 자유가 확고히 보장된 이북의 언론문제를 꺼내들고 북의 체제를 시비한 것은 악의 축발언의 연장선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부쉬가 얼마전 연두교서에서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데 이어 또다시 북의 체제를 비난하는 용납못할 망발을 늘어놓은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부쉬가 서울에 날아들었을때 말한 북미대화재개가 한갖 기만이라는 것을 세계면전에 드러내놓은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듯이 부쉬가 기회있을 때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날조해 북의 체제를 비난하고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망발을 줴치고 있는 살벌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를

하며 어떠한 대화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들이 하는 일은 다 정의요 선한 행동으로 묘사하고 저들과 사상과 제도, 가치관을 달리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무턱대고 악으로, 부정의로 몰아붙이는 미국의 체제야말로 악의 축이라 하겠습니다.

명백히 말하건대 호전광 부쉬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날조해 내어 북의 체제를 비난하는 악담을 늘어놓아도 거기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부쉬가 진심으로 북과의 대화를 바란다면 북을 비난하는 갖은 모해, 악담을 늘어놓지 말아야 하며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것을 철회해야합니다. 이것은 우리 민중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일치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부쉬가 대세의 흐름을 망각하고 북을 비난하는 정신병자의 넋두리를 계속 줴쳐댄다면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의 항거에 눌리어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2월 27일

### ≪만경대 위대한 가문≫ 자주문예학회

서울에 있는 중고교사들의 모임인 자주문예학회에서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신절을 맞아 제작한 팜플렛 ≪만경대 위대한 가문≫이 시민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널리 애독되고 있습니다.

서문과 2개의 체계로 되어 있는 팜플렛에는 시 ≪자주의 새세상을 연 위대한 가문≫이라는 제목하에 ≪남산의 푸른 소나무≫, ≪묘향산 가을아래≫, ≪조선아 너를 빛내리≫ 등 김형직선생과 **김일성**주석,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명시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팜플렛은 시 ≪민족의 새 역사를 개척하는 혁명가문≫이라는 제목하에 조선의 독립을 위해 한생을 바친 김형직선생과 조국의 광복과 6.25전쟁의 승리를 이룩하시고 이북땅위에 민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일으켜 세우신 **김일성**주석 그리고 미국의 대북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수고 통일된 강성대국의 미래에로 겨레를 향도해 가시는 **김정일**영도자님의 불멸의 공적이 그분들께서 몸소 창작한 ** 그대로 상세히 서술돼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한없이 경건케하고 있습니다.

### 반미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언론에 대한 비난

일부 언론이 극단적 반미주의니 뭐니 하며 각계의 반미투쟁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각계에서 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언노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모씨는 극단적 반미주의니 뭐니하는 일부 언론의 작태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저버린 폭거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고 정의와 진리를 전파하는 것은 언론이 지닌 본연의 의무이고 또 당연 **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이 민심의 반영이고 시대의 추세인 반미투쟁을 극단적이니 뭐니하고 모독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막힌 일이 아닐수 없다. 그래 그들은 반미에 우리 민족의 살길이 있다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우리 민족이 아직까지 분열의 비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시적인 전쟁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것은 미국이 이 땅을 강점하고 우리의 내정에 횡포하게 간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바로 이 땅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우리 민족이 언제가도 오늘의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날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걸 잘알고 있기에 지금 각계 민중은 반미투쟁에 흔연히 나서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가정도, 청춘도 아낌없이 바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이 우리 민족의 이같은 애국충정을 모욕하고 그에 칼질을 하고 있으니 범죄행위이면 이보다 더한 범죄행위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언론은 각성해야한다. 만일 일부 언론이 각계의 드세찬 반미항전에 동참하지 않고 그에 계속 반기를 들고 나선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재야인사 오모씨는 각계의 의로운 반미투쟁을 모독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는 우리 민중의 반미투쟁을 힘으로 제압하려는 미국의 흉포한 기도에 편승한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외세에 추종해 시대의 거세찬 흐름에 도전해 나선다면 조선일보와 같이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해치는 극악한 매문지로써 역사의 가녘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통일부 선별방북중지요구 통일연대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는 26일 통일부는 민간차원의 대화와 교류에 제동을 걸려는 선별방북을 중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통일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통일연대는 민족공동의 이익을 위해 많은 것을 양보하면서 행사성사를 위해 노력했다며 애국민간인교류의 승인기준에 부적합한 인사라는 잣대를 순서적으로 정한 것 자체가 민간통일운동의 자주성에 대한 심대한 훼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46명에 대한 방북불허조치는 부분적인 불허가 아닌 민족통일운동 자체를 왜곡하고 사실상 민족공동행사를 결렬시킨 사태라고 강조했습니다.

### 단병호위원장 징역 5년 구형

서울지방검찰청 공안2부는 25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가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다시 구속기소된 민주노총 단병호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단위원장에게 지난 99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의 사이에 10여차례에 걸쳐 롯데호텔, 대한항공, 서울대병원 등의 불법파업을 선도하고 민주노총의 도심불법집회 등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씌워 징역형을 구형하는 폭거를 감행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생존권투쟁을 불법으로 몰아붙이며 이를 주도한 단위원장에게 징역형을 씌우는 검찰의 행위는 노동자들에 대한 악랄한 도전일뿐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시위와 집회의 자유를 유린하고 탄압하는 불법이 아닐수 없습니다.

# 이회창을 퇴출시켜야할 10가지 이유

≪구국의 소리≫방송 편집국 고발장 - 구국의 소리 주체91 2월 26일~27일

지금 각계 민중들속에서는 이회창과 같은 악한이 절대로 대통령자리를 차지하게 해선 안된다며 반이회창투쟁을 힘차게 벌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이회창역적의 만고대죄를 폭로한 ≪구국의 소리≫방송 편집국의 고발장을 임현아씨와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 1. 이회창은 민족을 배반한 친일친미사대매국역적이다

이회창은 친일역적의 가문에서 나왔다.

이회창의 애비 이홍규는 1925년 경성법학전문학교(현 서울대 법대의 전신)를 졸업하고 해주지방법원 검사국 서기과에 첫발을 들여놓은 때로부터 독립운동과 노동운동, 농민운동탄압에서 세운 특출한 공로로 1940년에는 광주지방법원 검사국 사상담당 검사서기로 승진, 활약했다.

그는 1945년 8.15광복전 시기에 서울지방검찰청까지 올라가며 일제에 멸사봉공한 특등친일매국노였다. 이런 애비로부터 외세의존, 사대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이회창은 어린 시기에 애비와 함께 기모노를 입고 ≪천황폐하만세!≫를 부르며 사진을 찍는 과정 등을 통해 친일사상이 골수에 꽉 찼다.

그는 애비가 법관의 감투를 쓰고 독립운동가들을 밀고, 처형하고 일제에 충성하는데서 악명을 떨쳤던 것처럼 법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 땅을 미국의 영원한 식민지속국으로 만들기 위해 자주, 민주, 통일운동에 나선 의로운 인사들에게 온갖 악형을 다 들씌웠다. 하기에 그는 지금도 민족을 반역하는 친미사대매국행위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회창은 얼마전 미국을 행각해서 상전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북을 걸고 변한 것이 없다느니 핵개발이니 뭐니하는 망발을 했다. 그런가하면 대통령선거에서 미국이 자기를 지지해 줄 것을 애걸하면서 자기가 집권하면 휴전선일대에서 북의 무력을 후퇴배치시키고 대량살상무기개발중단을 요구하겠다고 맹약했으며 주한미군영구주둔론을 또다시 들고 나왔다.

이회창의 민족반역적이고 친미사대매국적인 망발은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0년 7월 6일 국회대표연설에서 그는 한미동맹은 한반도문제의 자주적 해결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고 떠들었고 2001년 1월 19일에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을 적극 지지하면서 부쉬행정부의 대북강경책이 한나라당의 대북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고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그리고 2001년 3월 12일 총재단회의에서는 남북공조보다 한미공조를 우선해야 한다고 떠들었다. 그는 2001년 8월 10일 그 무슨 시국강연회라는데서 주한미군철수문제가 나라의 안보를 해칠수있다며 우리 민중의 정당한 반미투쟁을 무분별한 반미운동으로 모독했다. 이것은 이회창이야말로 이미 처단됐어야 할 친일역적의 아들로써 미국에 개질을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침략자들에게 섬겨바치려는 극악한 친일친미사대매국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2. 이회창은 6.15남북공동선언을 반대하는 반통일분자이다

이회창은 내외가 지지하는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자마자 공동선언이 국민들에게 안보결여의식을 심어줄수 있다고 반대한데 이어 그로부터 며칠뒤인 6월 19일에 있은 기자회견에서는 북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다, 국민들에게 환상을 심어줘 들뜨게 했을 뿐이다, 긴장의 완화와 평화조항이 언급되지 않았다 뭐다 하면서 악랄하게 헐뜯었다.

이회창은 6.15남북공동선언이 실천단계에 들어가 남북관계에서 긍정적 변화들이 일어나자 남북화해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며 발악했다.

그는 남북간의 교류협력사업을 일방적인 퍼주기라느니 한국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느니 뭐니하면서 신뢰와 화합의 마당에 재를 뿌렸고 비전향장기수들의 북행길에 깡패들을 동원해 도로를 가로막고 차를 멈춰세우는 망동을 부렸으며 남과 북을 잇는 경의선복원공사 기공식때에는 뒷골방에 앉아서 남침통로가 개설된다고 비명을 올렸다.

그는 기회있을 때마다 상호주의와 투명성, 검증을 떠들며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한사코 반대해 나섰다. 그것도 부족해 이회창은 2001년 6월 15일 6.15공동선언발표 1돌을 계기로 진행된 총재단 국방위원회 연석회의에서 6.15공동선언과 관련해 밀약설, 사전합의설을 날조하면서 악랄하게 비방중상했고 평양에서 진행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과 관련해 이른바 돌출사건을 만들어가지고 6.15공동선언을 무력화시키고 남북관계를 대결의 원점으로 돌려세우기 위해 신매카시즘소동을 벌여놓았다.

이것은 이회창이 6.15공동선언의 악랄한 훼방꾼이고 통일의 걸림돌이라는 것을 실증해준다. 따라서 이회창을 그대로 둬두면 민족자주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이 제대로 이행될수 없다.

## 3. 이회창은 남북대결을 고취하면서 냉전논리 펴는 호전광이다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발표로 겨레의 통일열기가 비상히 높아지자 이회창은 2000년 6월 18일 북에 대량살상무기와 핵과 미사일문제가 그대로 남아있고 실제로 변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냉전논리를 주장했고 그로부터 며칠후인 6월 28일에는 직접 어느 군부대를 찾아가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 이루어져야한다며 남북대결과 전쟁열을 고취하는 망언을 거리낌없이 했다.

그는 2000년 12월 15일 재향군인회 회원들앞에서 남북관계의 이중적 구조니 적화통일이니 뭐니 하며 북에 대한 주적론을 떠들었고 2001년에는 정초부터 주적론을 연발하면서 북은 여전히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떠들며 대북적대시감정과 호전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런가하면 2001년 3월 12일에는 무력도발포기는 북이 말로 약속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면서 북의 군사력감축과 휴전선일대의 상용무기후방배치 등

도발적인 망언을 서슴지 않았고 일방적양보불가론, 이북불변론, 과거사사죄론을 들고나오며 첨예한 남북대결과 그에 의한 냉전을 불러왔다. 심지어 이북 무역선의 동해통과와 관련해 2001년 6월 한달동안에만도 강력대응과 무력사용을 떠들며 극도의 전쟁광기를 부렸다. 이것은 이회창이 남북관계를 첨예한 대결관계로 만들고 한반도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기 위해 광분하는 호전광이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이런 자를 그대로 둬두면 한반도정세가 극도로 긴장해져 전쟁까지 다시 터질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민족은 그 희생물로 될수밖에 없다.

## 4. 이회창은 형벌을 받아야할 살인범죄자이다

이회창은 지난 군사독재정권시기에 법관의 감투를 쓰고 애국민중을 학살, 처형하는데 직접 가담했다.

1961년 7월 12일 박정희에게 충성을 맹약하고 박정희가 지적한 혁명재판부의 심판관으로 임명된 이회창은 7월 29일 이른바 민족일보사건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그들에게 부당한 죄를 들씌워 중형을 선고했고 조용수사장에게는 사형판결을 내렸다.

진보적 언론인이였던 조용수씨에 대한 사형판결은 항소심 선거공판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같은해 12월 27일 교수형으로 집행됐다. 당시 최대 언론말살사건이였던 민족일보사건의 살인범죄자는 바로 이회창이였다.

1972년 3월 18일에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과 관련해 이회창은 대법원 대법관으로써 이 사건을 직접 담당하고 김현장, 문부식, 김은숙 등 관련자 15명에게 사형을 비롯한 중형을 선고했다.

1982년 2월 애국적 민주단체로 알려진 8월회관련자들에 대한 재청구심확정발표때 대법원판사로 직접 참여한 이회창은 무고한 주민들과 민주인사들에게 중형을 들씌워 모진 고문과 박해를 감행했다. 그때의 고문후유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거나 지금도 고통속에 신음하고 있다.

군사독재정권의 하수인역을 자임하며 수많은 사건들을 조작하여 무고한 애국민중을 학살처형하는데 가담한 살인범죄자가 아직도 정계에서 돌아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수치이다.

이런 자를 그대로 두면 자주, 민주, 통일을 주장하는 우리 민중은 죄아닌 죄명을 쓰고 감옥에 끌려가게 될 것이고 이 땅은 파쇼와 독재의 난무장으로 되고 말 것이다.

## 5. 이회창은 이 땅의 민주화를 반대하는 시대의 역행자이다

이회창은 희세의 반민족, 반통일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그는 기회있을 때마다 국가보안법철폐의 시기상조론을 운운하면서 악법도 법이라며 이 땅의 민주화를 악랄하게 반대하고 있다. 하기에 그는 지난 군사독재정권을 찬미하면서 파쇼광의 정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회창은 1997년 신한국당경선대회에서 박정희를 조국의 근대화를 이룩한 대

통령으로, 피의 권좌로 알려진 전두환의 군사쿠데타를 헌정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로, 노태우를 민주화의 토대를 닦은 대통령으로 치켜올렸고 그것도 모자라 나는 5, 6공시기에 대법관으로 일한 것을 지금도 떳떳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떠벌임으로써 독재를 미화하고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반대하는 수구보수분자로써의 나상을 스스로 드러냈다. 이회창은 지금 노동자들의 초보적인 생존권요구를 위한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로 모독하고 국민의 절대다수가 지지하는 국세청의 언론사세무조사에 대해 언론탄압 운운하며 별의별 험담을 다하고 있다. 그는 2001년 2월 6일 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언론사세무조사를 언론에 대한 탄압이니 민주주의위기가 극에 달한 것이니 뭐니하며 얼빠진 교시까지 만들어냈다.

족벌언론, 파쇼언론의 탈세와 부정비리행위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회창은 심복들을 동원해 공정한 언론개혁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들을 홍위병, 관변단체로 매도했고 심지어 언론사세무조사를 북과 연결시켜 남북대결을 고취하는데 악용하면서까지 민주화기운을 차단하기 위해 발광했다.

그가 2001년 7월 4일 무슨 언론탄압규탄대회라는 것을 벌여놓고 비판언론죽이기니 사전정비작업이니 하고 떠들었으니 이회창이야말로 국민의 초보적인 민주화요구마저 거세말살하려는 시대의 반역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자를 그대로 두면 지난 군사독재시기보다 더한 민주의 동토대, 파쇼의 난무장, 암흑의 세상이 이 땅에 펼쳐질 것이다.

## 6. 이회창은 부정비리와 부정부패를 일삼는 썩은 개쭉이다

이회창은 1996년 총선당시 신한국당 선거대책위원회 의장을 하면서 안기부가 국가예산을 전용하는 방법으로 9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183명의 같은 패당들에게 나누어주고 자기는 거액의 부정자금을 챙겼다.

이회창은 법관의 감투를 썼을 때에도 일반사건을 다루면서 기소된 사람들에게 동전을 넣어야 작동이 되는 공중전화를 아는가라고 강박하면서 거액의 부정축재를 했는가하면 1995년말에는 이회창후원회를, 2001년 5월초부터는 경기고, 서울대출신들을 기본으로 국가혁신위원회를 조작하고 이를 통해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이회창은 이렇게 부정축재한 돈 가운데 2억원을 들여 친일역적인 제 애비의 집을 복원하는데 탕진했다.

그는 얼마전 한나라당에 출입하면서 매문활동을 하는 기자들을 위해 생일파티를 조직하고 술놀이를 벌인 후에 그들에게 돈봉투까지 나누어주었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소속의 한 국회의원은 ≪이회창이 걸핏하면 법치주의를 외치지만 그의 뒤가 더 더럽다. 이제 내 입만 터지면 이회창의 부정 부리는 쫄딱 발가진다.≫라고 말한바 있다.

이같은 사실은 이회창은 청렴결백한 대쪽이 아니라 들추면 들출수록 부정부패의 악취만 풍기는 썩은 개쪽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자를 그대로 두면 이 땅에 별의별 부정비리와 부정부패가 다 창궐하게 될 것이고 이회창은 온갖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돈을 빨아들여 한국에서 제일가는 갑부로 될 것이다.

## 7. 이회창은 신의가 없고 배신을 잘하는 정치간상배이다

이회창은 지난 대선에서 금강산관광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금은 금강산관광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국민적 요구에 당치않은 구실을 내대며 그것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민의에 역행하고 있다.

그는 또한 지난 16대 총선 당시 특검제를 상설화하겠다고 했지만 오늘에 와서는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말을 뒤집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회창은 국민을 배반하는데서 뿐만 아니라 자기의 측근들을 배반하는데서도 첫손가락에 꼽힌다. 그와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은 지금 한나라당에 있건 당을 떠났건 간에 일치하게 이회창은 한번 인연을 맺으면 더 멀어지는 묘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회창은 길지않은 정치경력에 비해 너무나 많은 정적을 만들어놓았다. 이것은 신의가 없고 배신을 식은죽먹기로 하는 그의 속성과 관련된다. 이회창은 1997년 대선에서 자기의 당선을 위해 뛰었던 이모의원을 한나라당에서 쫓아내다시피 몰아냈다. 그때 활약했던 7인방이라는 핵심인물들도 이제는 밀려났거나 존재도 없다. 그는 또 결정적인 순간에 세번이나 크게 도움을 준 심복을 한나라당에서 제명했다.

1999년 여름 이회창의 7인방이였던 모의원은 이회창 옆에 있으면 다죽는다고 말했고 97년 대선때 이회창과 가까이 지냈던 3선의원은 그는 수하의 헌신과 수고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의리없고 비정한 사람이라고 분노를 표시했다.

그런가하면 지난 대선때 이회창의 비서실장까지 지냈던 윤모씨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회창이 대권을 쥐는 것만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같은 사실과 증언을 보아도 이회창은 국민배반을 능사로 여기고 자기의 심복들도 헌신짝처럼 쉽게 차던지는 너절하고 추악한 정치간상배라는 것을 잘알수 있다.

이런 자를 그대로 두면 우리 국민은 이회창의 국민기만행위에 의해 더큰 피해를 당할 것이다.

## 8. 이회창은 민생은 안중에 없는 대통령병자이다

이회창은 국민우선, 민생보장이라는 말을 곧잘 외우지만 그것은 민심을 낚아보기 위한 대권야심가의 기만극이다.

2001년 5월 한나라당이 발표한 세재개편방향에는 민생과 관련한 대책은 없고 오히려 몇억원짜리 집의 양도소득세감면 등 가진 자들과 독점재벌들을 더 배부르게 하는 조항들만 있었다.

이회창은 2001년 8월 29일부터 9월 29일까지 한달동안이나 국회를 버리고 거리에 나와 대여투쟁을 한답시고 거리시위만 했을뿐 국회에서 처리해야할 민생과 관련한 산적된 법안들을 계속 방치해놓았다. 그는 오직 대권야망실현에만 집착하면서 사조직인 국가혁신위원회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이는 한편 공작정치를 감행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2000년 12월 14일자가 밝혔듯이 이회창은 예상되는 여당 대선후보와 여권핵심부의 비리, 저들에 대한 적대적 언론인의 비리 등 관련자료들을 적극 활용할 것을 심복들에게 지시했다.

언론부문에서는 언론인들을 적대그룹과 우호그룹으로 나누어 적대그룹에 대해서는 비리 등 문제점들을 폭로, 여론화하고 우호그룹은 조직화한다는 것이다.

이회창이 얼마나 대권욕에 환장했는가 하는 것은 지난 1월 17일에 한 연두기자회견에서 거세게 대두되고 있는 한나라당의 당권대권분리요구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당권과 대권을 자기 혼자 맡고 있다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때가서 당권을 넘겨줄수 있다고 떠든 것을 보아도 잘알수 있다.

민생이야 어떻게 되든 대통령병에 걸려 대세도 분간하지 못하고 마구 날뛰는 그 오만한 작태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런 자를 그대로 두면 민생은 더욱더 형언할수 없는 도탄에 빠지게 될 것이다.

## 9. 이회창은 지역감정과 씨족감정을 고취하면서 국민갈등을 조장하는 사기협잡배이다

이회창은 1997년 5월 5일 한강 남원시민공원 만남의 광장에서 열린 ≪황해도민의 날≫행사에서 본인은 황해 서흥에서 태어났고 누님도 황해도 송화에서 출생했다면서 자기가 황해도 사람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4월 29일 충남 예산에 가서는 예산은 16대조부터 자리를 잡았고 부친이 태어난 본적지라면서 자기가 충남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런가하면 같은해 7월 9일 대구지역연설에서는 대구경북은 지난 40년동안 우리 경제부흥과 정치안정을 이끌어온 지역이라며 입에 침발린 소리를 했고 다음날인 7월 10일 광주연설에서는 광주에서 어린시절을 보냈다느니 고향 같다느니 뭐니 하며 아양을 떨었다.

그리고 2000년 8월 17일과 2001년 3월 1일 전주 이씨 종친모임에서 이회창은 전주 이씨가 국가를 경영한 집단으로 비록 왕조는 끝났지만 정신적 지반은 있다며 전주 이씨 역할론을 떠들었다.

2001년 8월에는 보름사이에 네차례에 걸쳐 충청지역을 찾아가 지역감정, 씨족감정을 고취했다.

이것은 이회창이 가장 비열하고 추악한 정치협잡꾼이고 지역갈등과 씨족갈등의 조장자라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 10. 이회창은 정치대안도 없는 정치낙제생이다

이회창은 1996년 총선 직전에 있은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은 개혁을 주장하는가 보수를 주장하는가라는 일본인 기자의 질문에 개혁적 보수라고 말함으로써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물론 자기의 심복들에서까지 신랄한 야유와 조소를 받았다. 그는 또 언론사세무조사와 관련해 똑똑히 알지도 못하는 어느 명인의 말을 자기 말처럼 주어넘기다가 톡톡히 망신까지 당했다. 이런 자에게 무슨 정치대안이 있겠는가. 한나라당 출신의 한 전직의원은 이회창은 여야갈등때마다 버티기만했지 한번도 자기의 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당직을 지낸바 있는 그는 ≪내가 있는 4년동안 한나라당이 자신있게 내놓은 정치적 대안과 이념적 지향은 무엇인지 기억이 나는 것이 없다. 항상 비판만 있었지 이회창이 자기의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그에게서 실망한 것이 바로 이 점이다.≫

이회창의 심복들속에서도 그는 참모조직을 어떻게 운용하고 조직하고 이끌어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전혀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쉽게 들을수 있다.

월간 ≪조선≫ 2000년 1월호는 ≪이회창을 나라를 망친 한나라당 총재≫, ≪국정에는 협조않고 정쟁만 일삼는 자≫, ≪국가경영비전이 없는 이회창≫으로 낙인하고 있다. 이것은 이회창이 정치에 정자로 모르는 생판 무식쟁이이고 정치낙제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도 모르는 이회창을 그대로 두면 우리 국민은 더 큰 불행과 고통에 빠지고 망국노의 비참한 운명에서 벗어날수 없다.

각계 민중은 시대와 민족의 역적이고 부정부패의 왕초이며 대권욕에 환장한 대통령병자인 이회창을 하루빨리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하게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회창과 같은 극악한 반민주반통일 사대매국역적이 감히 대통령꿈을 꾸고 있으니 참으로 소 웃다 꾸레미 터질 노릇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민중은 이회창에게 한표가 아니라 인간으로써, 정치인으로써 매장해버리고 말 겁니다.

#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2월 27일

## 김정일총비서 총련 허종만 책임부의장을 접견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27일 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허종만책임부의장을 접견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책임부의장과 담화를 하시였다.

##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 대표자회 3월 하순 소집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대표자회가 주체91(2002)년 3월 하순 평양에서 소집된다.

대표자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상감정이 온 나라 청년들속에 차넘치게 하며 새 세기 혁명적진군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조선청년들의 드팀 없는 신념과 의지,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로서의 청년동맹의 위력을 다시한번 힘 있게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다.

## 조선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치시는 천출명장

### 로동신문 27일 론설

≪로동신문≫은 조선민족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령도자로 높이 모신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자주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27일부 론설의 필자는 온 민족은 지금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의 위대한 수호자, 승리와 영광의 상징,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우러러 받들며 따르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강철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 뛰여 난 지략과 탁월한 령군술로 그 어떤 대적도 한손에 거머쥐시고 쥐락펴락하시며 제국주의 련합세력과 분렬주의세력의 도전을 단호히 물리치시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해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견지명의 예지와 령활한 지략, 정력적이고도 탁월한 령도, 무한대한 인간애와 숭고한 광폭정치에 의하여 민족자주통일의 새 시대가 펼쳐 지고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이 열리게 되였다.

전쟁이냐 평화냐, 영구분렬이냐 통일이냐, 죽느냐 사는냐 하는 운명적인 시각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이며 죽음을 각오한자 무서울것이 없다고 하시며 분렬주의세력의 무모한 도전에 맞받아 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하시였으며 민족대단결5대방침과 ≪우리 민족끼리≫라는 대의를 내놓으시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조선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자주통일시대를 열어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누구도 상상할수도 가늠할수도 없는 예지의 빛발과 탁월한 령도, 뛰여 난 지략, 넓은 도량과 포옹력으로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민족자주통일리정표인 6.15북남공동선언을 탄생시키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민족의 수위에 모신것은 조선민족의 행운중의 행운, 영광중의 영광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 나가는 여기에 민족자주통일위업의 승리가 있다.

## 총련 축하단, 대표단 백두산지구 참관

백두산밀영 고향집을 방문한 총련 대표단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허종만책임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인축하단과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조령현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현본부위원장일군대표단이 25일 백두산지구를 참관하였다.

삼지연대기념비를 찾은 그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다함 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그이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린후 부주제조각군상들을 돌아 보았다.

이어 총련의 축하단, 대표단은 혁명의 성지 백두산밀영을 방문하였다. 그들은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계시던 사령부귀틀집을 돌아 본 다음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백두산밀영고향집을 방문하였다. 그들은 고향집앞에서 기념사진들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재일본조선인축하단 성원인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주상조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백두산밀영고향집을 방문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위대한 령도자로 모시고 사는 끝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가슴깊이 간직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은 민족의 새 력사를 알리는 일대 경사였다. 비범한 예지와 슬기, 무비의 담력과 고매한 품성, 원대한 뜻을 지니신 그이께서는 수십성상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주체의 사회주의를 승리에로 이끌어 오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에 의하여 우리 조국은 온 세상에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리고 있다.

총련현본부위원장일군대표단 성원인 총련도꾜도본부 김수식위원장은 민족의 향도성이 솟아오른 혁명의 성지 백두산밀영고향집은 온 겨레와 진보적인류의 마음의 고향으로 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비록 이역땅에서 살고 있지만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니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총련애국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 나가겠다.

## 2.16경축공연 2월의 예술의 밤 도꾜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경축공연 ≪2월의 예술의 밤≫이 27일 일본 도꾜에서 진행되였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서만술의장과 부의장들, 국장들,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김정수위원장, 일조문화교류협회 사무국장 시미즈 쥰, 조선녀성과 련대하는 일본부인련락회 대표 시미즈 스미꼬를 비롯한 ≪2월의 예술의 밤≫실행위원들, 일본의 각계 인사들, 재일동포들과 일본인민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공연에는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무용부성원들과 도꾜조선남성중창소조원들, 민족기악중주단, 조선학교학생들, 일본의 저명한 가수들과 무용가들이 출연하였다.

무용 ≪봄을 그리며≫로 막을 올린 공연에는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라 특색있는 무대가 펼쳐졌다. 특히 일본인가수 오가사와라 미쯔꼬와 공화국공훈배우인 재일조선인가수 정호월의 독창, 일본의 북연주가 이마후꾸 유우의 ≪와다이꼬연주≫는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올해로 19번째 되는 공연은 조선과 일본의 앞날을 지향하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려는 두 나라 인민들의 친선의 정이 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조선통신)

## 조선은 미제와 결판을 내고야 말것이다

27일부 ≪로동신문≫은 부쉬의 남조선행각을 대결행각, 전쟁행각, 반평화, 반통일행각으로 특징 지였다. 론평의 필자는 우리는 이번에 부쉬가 힘에 의한 우리의 제도변경을 추구한데 대하여 특별히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생명이고 생활이며 미래인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버릴것을 강요하는것은 우리 인민이 서방식, 미국식을 따르고 노예의 길, 죽음의 길을 택하라는것과 같다.부쉬가 남조선의 ≪자유≫와 ≪평화≫를 운운하면서 남조선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것이라느니, 그 누구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힘을 다할것이라느니 한것은 미국의 반통일분렬주의적정체와 침략야심을 여실히 드러내 보인것이다. 부쉬의 망언은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계속 틀어 쥐고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며 이곳을 전초기지, 전선방위지역으로 하여 공화국북반부를 침공하고 아시아를 정복하려는 미국의 전략적의도와 립장을 다시금 확언한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론평은 부쉬가 이번 남조선행각시 우리를 ≪위험한 정권≫으로 묘사하며 그 무슨 ≪대량살륙무기제거≫에 대하여 망발한것은 선과 악, 정의와 부정의를 뒤바꾸어 놓은 악의 론리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명백히 말하는바 우리는 부쉬패당들이 우리에 대하여 그 어떤 험담과 독설을 늘어 놓으며 침략위협을 가하여도 조금도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않을것이며 초강경대응자세를 더욱 강화할것이다.우리는 자위를 위해 미싸일을 개발하고 있다는것을 이미 밝히였다.

우리는 적들이 반공화국압살책동에 광분할수록 자위적국방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정의의 전쟁태세를 강화해 나갈것이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힘으로 변경시켜 보려는 부쉬패거리들은 우리와 상종할 대상이 안된다.우리는 미국이 우리의 제도를 인정하려 하지 않으면서 북침전쟁의 구실만을 찾기 위해 제창하는 대화에는 전혀 흥미가 없다.그런 대화는 우리에게 필요 없으며 무익하다.

# 주체연호와 태양절 제정, 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특강≫ 역사에 길이 빛날 선군 영장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영도 제5회
학사 리종욱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2월 27일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주체연호와 태양절을 제정하며 어버이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모시도록 현명하게 영도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주체연호와 태양절을 제정하신데 대해서 보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수령님의 유훈의 뜻이 꽃펴나는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속에 수령님의 업적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86(1997)년 7월 8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오늘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오늘의 내각입니다) 결정서≫를 발표하도록 하셨습니다.

결정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1912년을 원년으로 해서 주체연호를 제정하며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태양절로 제정하였습니다. 주체연호와 태양절을 제정할데 대한 결정서는 이 땅, 이 행성 위에 어버이수령님의 역사가 영원히 흐르게 하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획기적 사변이었습니다. 주체의 연호와 태양절을 제정한 것은 어버이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끝까지 빛내어 나갈 수 있게 한 자랑찬 경사였습니다.

1912년을 원년으로 해서 주체연호를 엮어가고 해마다 4월 15일을 태양절로 뜻깊게 쇠게 됨으로 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자기의 산 역사로 펼쳐가고 실생활로 꽃피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체연호와 태양절의 근본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어버이수령님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연호이고 명절이라는데 있습니다. 주체연호와 태양절의 제정으로해서 사람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을 다시금 심장깊이 간직하고 수령님의 업적을 뜨겁게 추억하면서 수령님의 영생을 절절히 기원하게 되었습니다.

주체연호와 태양절이 제정됨으로해서 우리 민족사와 인류사는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으로 억만년 흐르게 되었고 수령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은 우리 민족과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체연호와 태양절을 ≪불멸의 태양연호≫, ≪위대한 명절≫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체연호와 태양절의 근본 특징은 또한 그것이 가장 인민적인 연호이고 명절이라는데 있습니다. 주체의 연호와 태양절은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인민이 가지게 된 태양민족의 영원한 연호이고 위대한 명절입니다. 지난 시기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들에 존재한 적지 않은 연호들은 절대다수의 인민대중과 등진 소수 착취계급, 지배계급의 협소한 이익을 반영한 연호들이였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연호들은 인민대중의 버림을 받고 일정한 시기에만 존재하고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노동계급의 선대수령들의 탄생일도 사회주의배신자들에 의해서 근로대중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뜻깊게 기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체연호와 태양절은 이와는 근본적으로 달리 우리 인민들이 자기 삶의 한 부분처럼 귀중히 여기면서 즐겨쓰고 성대하게 기념하는 가장 인민적인 연호이고 명절입니다. 주체의 연호와 태양절이 제정된 때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사람들마다 자기의 생활에서 뜻깊은 일들이 생겨난 해들과 나라의 경사와 혁명의 승리가 아로새겨진 ***했을 뿐아니라 해마다 4월 15일을 태양절답게 가장 성대하게 최대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체86(1997)년 7월 9일 조선중앙방송으로 주체연호와 태양절을 제정할데 대한 결정서가 발표되던 날에 있은 일입니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 있는 평양산원과 공화국북반부의 곳곳에서 새 생명을 받아 안은 어머니들은 저저마다 자기의 귀여운 아기들의 출생일을 새로운 주체연호로 자랑스럽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후대들에게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없는 은덕과 수령복에 대해서 가슴뜨겁게 말했습니다. 이 사실은 공화국북반부 인민들의 생활에서 꽃펴난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가 영원히 어버이수령님의 역사로 흐르게 되고 이 땅, 이 하늘아래 **김일성**민족, 태양민족이 생존하는 한 주체연호와 태양절은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인민의 연호, 인민의 명절로 길이 전해지고 빛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체연호와 태양절은 우리 민족사와 세계사에 처음으로 되는 인민적인 연호, 인민적인 명절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게 됩니다.

주체연호와 태양절의 근본특징은 또한 가장 혁명적인 연호이고 명절이라는데 있습니다. 주체의 연호와 태양절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주체조선의 역사와 더불어 길이 빛내이고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가 어려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연호와 태양절을 제정하심으로해서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이 확고히 담보되고 이 땅의 역사가 영원히 수령님의 역사로 줄기차게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닥쳐와도 오직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확고한 결심과 의지대로 사회주의위업의 위대한 역사를 긍지높이 엮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는 어버이수령님께서 탄생하신 태양절을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과 혁명업적을 노래하고 인류의 자주위업을 힘있게 떠민 값높은 승리와 성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으로 해서 주체연호와 태양절을 가장 혁명적인 연호이고 명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체연호와 태양절을 제정할데 대한 결정서는 이 땅, 이 행성 위에 어버이수령님의 역사가 영원히 흐르게 하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획기적 사변이었습니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우리 당과 인민이 제국주의자들의 집요한 반공화국, 반사회주의책동과 거듭되는 자연재해로 해서 어려운 고난의 행군을 하는 가장 준엄한 시기에 억만년 앞날을 내다보시고 태양민족의 주체연호와 태양절을 제정하신 바로 여기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특출한 공적의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모시도록 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87(1998)년 9월초에 있은 역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어버이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모시도록 못박은 사회주의헌법을 새로 채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헌법발전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정치적 사변으로 됩니다. 역사적인 이 회의에서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헌법이 수정, 보충됨으로해서 우리 헌법은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김일성**헌법≫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주체61(1972)년 12월에 있은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그후 사회주의헌법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되고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되었으며 우리 혁명이 전진하는데 따라 발전완성되어 왔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주체81(199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 회의에서 수정보충된 후 1998년에 다시 새로 보충되게 되었습니다. 1992년부터 1998년 기간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도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적 전환이 일어난 시기였습니다. 우리 혁명은 자기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 우리 인민은 주체혁명의 새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 기간 내외환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변화된 현실은 그에 맞게 사회주의헌법을 새로운 내용들로 수정보충하고 완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비범한 예지로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시대적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할데 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며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의 기본정신과 독창적인 구성체계, 기본내용을 고수하고 그 계승성을 확고히 보장하는 기초위에서 더욱 발전풍부화하는 원칙을 견지하시고 변천된 환경과 현실에 맞게 분석, 보충, 정리하고 완성하시었습니다.

새로 수정보충된 사회주의헌법은 서문을 새롭게 앉히고 국가기구부문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일부 조문내용과 표현들을 보충정리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새로 구상하고 친필하신 서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국가건설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영원히 **하고 우리 공화국의 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헌법≫으로, 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명명한 것입니다.

우선 헌법서문에는 ≪우리 공화국이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사회주의조국≫이고 ≪위대한 수령님은 공화국의 창건자이시고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문에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상과 영도업적이 조선문명의 만년재보이고 공화국의 융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라는 것을 밝히고 당의 영도밑에 어버이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수령님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이라는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고 철의 의지입니다.

이처럼 헌법서문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높은 충실성과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가장 고결한 도덕의리심이 뜨겁게 담겨져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헌법들을 보면 서문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건국과정을 간단히 서술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헌법처럼 서문에 국가창건자의 사상과 영도업적을 **하고 수령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의지를 담고 있는 그런 헌법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수정보충된 사회주의헌법 서문의 독창성과 근본특징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인류헌법사에 일찍이 있어본적 없는 혁명적 수령관으로 일관된 위대한 ≪**김일성**헌법≫으로 영원히 빛을 뿌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영도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3.1봉기의 교훈과 현실

김대룡 - 구국전선 주체90, 3월 1일

3.1봉기가 있은 때로부터 82돌이 된다.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해 일어났던 거족적인 3.1봉기는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나 실패를 면치 못했다.

3.1봉기는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하자면 반드시 탁월한 수령의 영도밑에 올바른 전략전술을 가지고 투쟁을 조직적으로 벌여나가야 하며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사상을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기였다.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독립을 성취하려던 우리 민족의 염원은 절세의 애국자이시고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 겨레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항일무장대전을 승리적으로 조직영도하심으로써 빛나게 실현되었다.

역사적인 3.1봉기가 있은 때로부터 8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 땅은 의연히 식민지로 남아있다.

오늘의 현실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땅에서 미제침략군을 내쫓고 민족의 자주권을 찾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각계 애국민중은 반미자주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종식시키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공동선언에 명시된대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싸워나간다면 반드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할 수 있다.

우리는 3.1봉기의 역사적 의의와 교훈을 깊이 명심하고 오늘의 현실에 걸맞게 자주, 민주, 통일 투쟁을 더 힘차게 벌여나가 새 세기의 가까운 앞날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여 민족의 숙원을 성취해야 한다.

#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은 없다

## 3.1운동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민족자주 선언대회

7대 종단과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공동실천)는 3월 1일 오후 2시 종묘공원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민족자주 선언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동실천 관계자는 ≪부시의 한반도 평화 파괴 발언인 ≪악의 축≫ 발언이후 급속하게 전쟁위협이 다가오고 있고 이에 편승하여 군사대국화를 강화하고 있는 일본 등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지금의 상황에서 평화를 사랑하고 민족자주를 원하는 모든 세력의 뜻을 모아 3·1 항일정신을 계승하여 미·일 전쟁획책을 막아내기 위한 선언대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즈음하여 미국은 F-15K 등 군비증강, MD체제 편입, 스크린쿼터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은 미국의 테러보복전쟁을 계기로 재무장화와 군사대국화 추진, 한일투자협정체결을 강요하고 있다.

이번 선언대회는 7대 종단 대표와 문화, 예술계대표의 연설, 2002 남북 새해맞이 추진위 금강산 행사 반전평화활동 보고, 조국과 청춘,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노래공연, 전현찬 의장(전국농민회 총연맹)의 선언문 낭독과 평화대행진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실천 관계자는 ≪3·1항일운동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310명의 각계인사가 연망한 선언문 낭독하며 선언문을 배경으로 한 현수막에 선언 참가자들의 손싸인을 찍어 걸개그림으로 사용하고 행사 후 이 걸래그림을 행진용 플랭카드로 사용한다≫고 했다.

≪3·1절 83주년 기념에 즈음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310인 민족자주선언≫(민족자주선언문)은 ≪우리 민족의 역사는 말 그대로 평화와 자주를 위협하는 외세와의 투쟁의 역사였다≫고 선언하면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일체의 전쟁 음모와 책동을 반대하며 이를 분쇄할 것을 결연히 선언한다≫고 밝히고 있다.

민족자주선언문은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는 반드시 전쟁없는 한반도의 역사를 이루어 내고야 말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신용철기자
오마이뉴스 2002/02/28

# 네티즌, 거리로 나서서 ≪미국제품 불매운동≫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의 편파판정 시비를 계기로 온라인상에서 ≪반미시위≫를 벌이고 있는 네티즌들이 이제는 거리로 나선다.

그동안 사이버시위- 관련사이트 다운시키기-오노선수 이메일 보내기- 김동성선수 금메달 수여운동- 각종 패러디 창작물 제작 배포 - 미국제품 불매운동을 벌여오던 네티즌들은 3·1절을 계기로 거리시위를 계획하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인터넷상에서만 이뤄지던 네티즌들의 ≪반미감정≫ 을 본격적인 행동전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시위 사이트들과 한국네티즌협회(http://www.18usa.ce.ro)는 3월 1일 서울역 12시, 부산은 태화쇼핑옆 맥도날드 앞에서 오전10시부터 청주에서는 오전 11시 시내중심가 철당간에서 각각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한국네티즌협회 명의의 홍보물에 의하면 ≪2002년 3월 1일은 제2의 대한민국 독립만세의 날이다≫며 ≪미국은 동맹국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행위를 해왔다. ≪악의축≫발언으로 우리를 분노케 하고 올림픽정신까지 무시한 불공정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미국을 비판한 뒤 ≪민족의 자존심과 긍지를 높이세우기 위해 미국제품 불매운동에 나선다≫라고 밝혔다.

네티즌들의 이러한 거센 ≪반미시위≫에 대해 반미운동단체 관계자는 ≪이번 네티즌들의 ≪반미운동≫이 온라인상의 사이버시위만으로 그치지 않는 점과 일회성 감정폭발로 그치지 않고 계속이어지고 있는 점, 특히 미국제품 불매운동이라는 구체적 실천을 유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때 그동안 재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펼쳐지던 ≪반미운동≫이 새로운 양상으로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며 반미운동이 국민들의 생활운동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전망했다.

이준하기자
유뉴스 2002/02/28

# 여야 의원, 반민족행위자 1차 708명 명단 발표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조사한 ≪일제하 친일 반민족행위자 1차 명단≫을 발표했다.

현역의원들의 친일파 명단 발표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총 708명의 언론, 사회, 종교, 문화계 등의 친일파 명단이 공개됐다.

새롭게 포함된 16명 가운데는 동아일보 창립자 김성수, 조선일보 창립자 방응모, 여성박사 1호 김활란, 시인 모윤숙, ≪봉선화≫ 작곡가인 홍난파, 서울음대 창설의 주역 현제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아직도 친일파가 심어 놓은 세력의 힘이 막강함을 느꼈다≫

이번 명단선정에 심의위원장을 맡았던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은 ≪이번 명단공개에는 광복회의 헌신적인 노력이 큰 도움이 됐다≫고 전제하고 ≪처음 광복회가 제출한 명단에는 643명을 확정하고 66명을 보류하기로 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보류자중 49명을 확인을 거쳐 확정했고, 최종적으로 보류됐던 17명에 대한 재확인 작업을 거쳐 시기부적절로 판명된 1인을 제외한 708명 전원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의원은 덧붙여 ≪특히 이번 발표에서 끝까지 논란이 된 인물들은 현재도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언론기관에 관련된 방응모나 김성수 같은 이들≫이라고 말하고 ≪아직도 친일파와 그들이 심어놓은 세력의 힘이 막강함을 피부로 느꼈다.≫고 언급했다.

이회창 총재 부친의 친일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서기보 했다고 알려졌는데 아직은 어떤 죄상이 있는지 구체적인 근거나 확실한 증거가 없는 여당 의원 개인 주장이고 당시 서기보 한 사람까지 다 포함시키자면 수만이 될 것≫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명단 발표 후 박정희 전대통령이 명단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고 의원들은 이번이 1차이지 결코 최종명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 2차, 3차 계속 친일파를 밝혀낼 것이고 당시 행적 등도 낱낱이 밝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의 영향력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들이 거대언론의 전 사주들(방응모, 김성수)과 동아일보 주필(장덕수)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것은 소신있는 행동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의원들은 ≪이들 3인은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에 참가, 조선인들이 학병 참전을 권유하고, 각종 친일 논설과 강연을 펼친 행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양대 일간지는 방응모, 김성수 등 사주들의 치부에 대한 학계와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를 애써 외면해왔으나 3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이를 ≪공인≫함에 따라 이 신문들이 이를 어떤 형태로 처리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83주년 3.1절을 하루 앞둔 여야의원들의 ≪2.28 거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조선-동아 연합군≫과 타 일간지들로 갈렸다.

≪≪친일≫ 708명 명단 공개≫를 1면 사이드 탑으로 취급한 한국일보도 경향신문, 대한매일과 함께 관련 사설을 게재해 국회 차원에서 53년만에 재시도되는 ≪역사 바로 살리기≫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대한매일과 한겨레는 친일파 708명의 명단을 모두 싣는 ≪뚝심≫을 보였다. 일제하 사주들의 친일행각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에 침묵을 지키던 조선, 동아도 1면 탑에 ≪정치적, 감정적 결정에 책임질 수 없다≫는 윤경빈 광복회장의 입을 빌어 의원들을 공격했다.

그 동안 정치권의 대표적 ≪금기≫ 가운데 하나로 치부돼온 ≪친일파 청산≫ 문제를 현역의원들이 나서서 거론한 것은 제헌국회에서 친일파들의 와해공작으로 흐지부지된 ≪반민특위≫의 정신을 계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들은 뒤 이어 ≪일제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족정기 의원모임 소속 임종석 의원(민주당)은 이 법률을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의 범주, 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관련 사항들이 규정되고, 민간차원에서 이뤄져온 친일파 진상규명 활동 지원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김희선 의원은 ≪이번 1차 명단 발표는 일제잔재 청산 작업을 해나가는 불쏘시개일 뿐≫이라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번 발표는 민족사 정립을 바라는 국민 여망의 반영으로, 국회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사청산에 나서기를 기대한다≫는 환영 논평을 냈다.

기사정리 / 김창혁기자
통일아리랑 편집위원회 2002/02/28

# 대한민국은 독립국가인가

## ≪우리 시대의 3.1운동≫ 현장을 찾아

위안부할머니와 조문기 이사장

2002년에 맞이하는 3.1절 83주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이라는 말 한마디에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한국내 여론이 친미?반미로 양분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빼앗긴 설움을 안은 채 돌이킬 수 밖에 없었던 약소국의 비애 등 작금의 상황이 의미하는 것은 아직도 대한민국은 완전한 독립국가가 아니라는 점이다.

≪3.1운동의 정신은 33인 대표가 발표한 기미독립선언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세로부터의 자주독립을 염원하는 민중의 힘에 담겨져 있으며 그 정신은 지금도 진정한 자주독립을 외치는 사람들 속에 유유히 흐르고 있다.≫

MBC가 3월 1일 오전 10시 50분 방영하는 ≪우리시대의 3.1 운동≫ 특집다큐멘터리의 제작자 김상균 PD의 기획의도다. ≪우리시대의 3.1운동≫이 던지는 메시지는 진정한 3.1정신은 지금도 제2의 독립운동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21세기 반민특위인 ≪친일인명사전 편찬사업≫ ≪1945년 부민관 폭파사건의 주인공 조문기 선생이 완벽하지 못했던 독립운동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나눔의 집≫ ≪미군기지 철폐와 SOFA 불평등 조약 철회를 외치는 문정현 신부≫ ≪한국의 민족교회 향린공동체≫ 등의 현장을 찾아 오늘도 살아있는 3.1운동의 정신을 되새긴다.

미군기지 철폐와 SOFA 불평등 조약 철회를 외치는 문정현 신부

친일파 등 일제 청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해방을 맞은 한국사회는 미국의 신탁통치를 거치며 일제시대 친일파들이 친미주의자로 무늬만 바꾸는 것을 용인했고 그 결과로 자주국가로서 한국의 진정한 독립을 이루는데 한계를 노출시켰다. 친일 친미 반북 등으로 이어지며 기득권

나눔의 집을 찾아 사죄하는 일본인 청년들

을 누리고 있는 극우보수세력과 한반도의 분단고착은 한국이 완전한 독립국가로 발전하는데 한시리도 빨리 넘어야할 장애물이다.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검증이 선행돼야 역사의 수레바퀴는 앞으로 굴러갈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에 부시의 발언이나 솔트레이크 올림픽의 쇼트트랙 편파판정 등으로 인해 불거지고 있는 미국상품 불매운동 등 반미정서는 83주년을 맞는 3.1운동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돼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반면교사는 아닐까.

이영태기자
프레시안 2002/02/28

# ≪통일연대 불참 결정은 옳아≫

≪인터뷰≫ 통일연대 사무처장 김이경

통일연대 사무처장 김이경

27일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이 남측 참가단이 금강산에 도착한 상태에서 무산되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가운데, 이번 행사 무산의 원인인 통일연대의 불참과 관련해 김이경 통일연대 사무처장과 통일연대 사무실에서 긴급 인터뷰를 가졌다.

김이경 사무처장은 ≪이번에 통일부가 아무 근거도 없이 46명을 방북을 불허한 악수(惡手)를 두었다≫며 ≪이번 행사 결렬의 진정한 원인은 미국과 수구보수세력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새해맞이 공동행사가 무산되었다. 소감을 말해달라.

◎ 지금 우리 정세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또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 미국의 치열한 전쟁책동과 6.15 선언 실행을 저지시키려는 압력이 얼마나 집요한지 알 수 있다.

미국은 남북이 민족대단결을 이루면 남한정부를 끌여들여 전쟁을 벌이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6.15 선언을 무산시키기 위해 남북관계를 차단하려 하고 있으며 이것이 이번 행사의 무산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 대규모 방북 불허를 통보받고 어떻게 대응했나?

◎ 먼저 통일부에 해명을 요구하고 불허 조치를 통일연대와 상식있는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범주로 국한해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여지가 없다는 게 통일부의 입장이었다. 따라서 행사에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다. 당연히 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니 갈래야 갈 수가 없었다. 한상렬 상임대표를 제외하고 대표도 한 명 못 가고 대부분이 못 가고 몇 명밖에 갈 수 없는 조건이었다. 실무대표단으로 행사를 준비해온 한충목 집행위원장과 사무처장인 저도 갈 수 없으니...

정부에 대한 규탄을 종단, 민화협과 의논하더라도 지방에 계신 분들에게 누를 끼치는 결례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행사에 불참하게 되었다고 연락했으며, 종단과 민화협 쪽에도 같이 안가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 통일연대가 종단과 민화협의 행사 진행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

◎ 다소 오해의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행사의 공동주체라고 할 수 있는 종단, 민화협, 통일연대, 북측, 이 4주체중 3주체가 합의한다면 반대할 의사가 없고 잘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명분과 의리를 중하게 여기는 북이 행사를 수락하겠는지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었으며 민화협과 종단이 실망하고 돌아올까봐 걱정이 많이 되었다. 출발 당일도 손을 흔들어주고 악수하면서 ≪기왕 가는데 잘 하라, 민족공동행사가 잘 됐으면 좋겠지만 성사가 될런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사실 우리가 불참한 것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진행된다면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다행히 공동으로 유감의 입장을 표명한다고 하니까 우리의 뜻이 반영되었다고 보고 민족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지지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그래도 행사자체는 부분적으로 파행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즉 부문별 모임에서 노동자, 농민, 청년 등이 어려울 것이고 통일연대측 실무대표단이 없는 상태에서 남북이 ≪구체적인 공동합의≫를 내는 것은 안된다고 보았다.

□ 그러나 실제로 남북공동의 항의 표시는 불발로 끝났다.

◎ 종단 어른들이 그렇게 입장을 정한 것은 정부의 입장을 어렵게 하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정부의 어려움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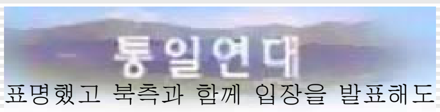
우리는 통일운동의 자주성을 고수하고 6.15 실천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촉구하는 것이 정부를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종단 어른들은 미국의 방해 노력과 한나라당의 공격에 극복보다는 굴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정부의 현재 입장을 중심으로 판단한 것이다.

□ 결국 북측이 대회 무산을 선언했다.

◎ 북측이 민간통일운동의 순수성이 보장되지 않고 훼손되는 것에 대해 나름대로 대처하지 않고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대의명분도 없고 도덕적으로도 문제라고 판단한 것 같다. 북측의 판단이 옳다고 본다. 남측의 종단과 민화협도 이미 유감을

26일 아침 경복궁에서 대책을 논의하는 통일연대회원들




표명했고 북측과 함께 입장을 발표해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통일연대의 어려움에 대해 한마디도 없이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북측이 신의(信義)문제로 보고 있을 것이다.

□ 앞으로 아리랑축전, 6.15, 8.15 등 민간교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 통일연대 상집회의에서 작년에는 쉽게 자주교류사업이 이루어졌지만 올해는 좁아진 문을 통과하기 위해 원칙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대중과의 사업에 역점을 두고 국민의 힘을 결집해서 민간교류도 풀어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감스럽지만 아직 민간통일운동 진영의 힘이 정부만큼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아리랑축전, 6.15 등은 정부간 대화에서 뚫어야 가능하다. 행사가 무산돼 정부도 곤혹스런 입장일 것이지만 이번 일로 앞으로 남북 정부간 대화의제 중 민간교류를 채택할 근거가 확실해졌다고 본다.

또한 북미관계나 남북관계 전체를 보았을 때 미국과 한국이 이북을 무시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역시 우리가 해야할 가장 올바른 입장은 정부간 대화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통일운동의 근본을 바로잡고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며 종단, 민화협과 연대해 나가는 것이다.

김치관기자
통일뉴스 2002/02/27

# 서울지역 학생회장들, 금강산 관광 진행

대학생들이 단체로 금강산 관광에 나선다? 각 대학에서 ≪금강산 모꼬지≫, ≪금강산 수련회≫등이 활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22일(금)에는 서울지역 각 대학 학생회장단이 금강산을 찾았다. ≪직접 보고 견문을 넓혀 서울지역의 교류사업, 각 대학별 교류협력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자≫는 취지로 진행된 이번 관광은 인터넷신문 유뉴스와 (주)현대아산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산업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상명대, 연세대, 항공대, 홍익대, 중앙대, 고려대, 국민대, 덕성여대, 성신여대 총 12개 대학에서 학교별로 총학생회장 또는 부총학생회장, 단과대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회장등이 대표로 참여했다. 대학생 대표단들은 22일(금) 속초항을 출발해 고성항에 입항했고, 23일(토)에 금강산 산행, 교예공연 관람, ≪금강산으로 모꼬지 가자≫는 주제의 총학생회장단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24일(일) 삼일포, 해금강 코스등을 돌아본 뒤 속초항으로 돌아왔다.

서울산업대 김경진 부총학생회장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역시 북측 사람들과 직접 대화했다는것≫이라며 ≪한 북측 안내원과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나누며 한민족이라는걸 새삼 느꼈던 것이 가장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학생대표단 단장을 맡았던 이재희 항공대 총학생회장(서부지구총학생회연합 의장)은 ≪북녘땅이 주는 감동은 기대이상이었다≫며 ≪금강산 관광은 통일사업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관광자체가 교류이며, 남북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금강산 관광은 6.15시대에 요구되는 대중적인 통일방식≫이라고 밝혔다.

금강산 관광을 마친 소감을 물으면 ≪너무 좋았다. 꼭 다시 오고 싶다≫는 대답으로 일관하던 학생회장들. 그러나 ≪다시 오고 싶어도 이제 올수가 없죠≫라는 서부총련 의장의 말처럼, 이들은 자신들이 곧 수배자가 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기도 했다. 한 학생회장은 금강산 관광 도중, ≪지금 말그대로 이적단체가 적의 땅에 온 것 아니냐≫며 ≪우리가 지금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 회합, 통신, 찬양, 고무죄등을 짓고 있다≫고 웃음짓기도 했다.

2박 3일간의 관광을 마친 학생회장들은 ≪금강산 관광이야말로 통일사업≫이라며 ≪대학생들부터 나서서 이러한 남북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켜 통일흐름을 앞당겨야 할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유뉴스 2002/02/28

# 정가에 ≪박근혜 폭탄≫ 터져

정가에 박근혜 폭탄이 터졌다. 한나라당 박근혜 부총재는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경선엔 불참하되 탈당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가의 일반적 관측을 깬 전격 탈당이다.

박 부총재는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거부한 채 어떻게든 집권만 하겠다는 기회주의적 생각에 더 이상 동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제 한나라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은 책임 있는 민주정당, 국민정당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받느냐, 아니면 총재 1인의 정당으로 남느냐 하는 기로에서 국민적 여망을 외면하는 불행한 선택을 하고 말았다≫며 이회창 총재와 주류 측을 맹비난하고, ≪정당보다는 나라가 우선이라는 소신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 정계개편 추진파들 다시 한번 힘 얻어

지금까지 3자대결을 가상한 여론조사 결과 박 부총재는 이회창, 이인제에 이어 3위를 기록했고, 이회창 총재의 지지율을 크게 잠식하지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중앙일보 조사는 이회창 46% 이인제 30.6% 박근혜 20.3%, 올 1월 한국일보 조사는 40.5% 28% 18.6%, 지난 4일 한겨레신문 조사는 38.2% 30.8% 17.4%였다.

박 부총재의 지지율은 거의 비슷하고, 이회창-이인제 사이의 격차만 다소 줄어든 결과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추세만으로 상황을 단정짓기는 어렵다. 박 부총재의 탈당으로 대선구도 전체에 큰 지각변동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장 자민련, 민국당, 그리고 중도개혁포럼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정계개편 추진세력들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균환 중도개혁포럼 회장은 27일 자신의 후원회 행사에서 ≪낡은 정치제도를 개선하고 통합의 정치지형을 창출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며,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정치형태를 바꾸는 데 앞장 서겠다≫며 권력구조 개편, 정계개편 논의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연초 한차례 불거졌다 수면 아래로 잠복한 정계개편 논의가 다시금 불거질 개연성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경선전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움직이이 조기에 가시화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고 지방선거 결과를 지켜본 이후 만약 민주당이 대패할 경우 바로 그 시점이 정계개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몽준 의원이 27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월드컵이 끝나면 시간이 별로 없지만 축구처럼 논스톱 슛을 쏠 수도 있다≫며 대선도전 의사를 피력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박근혜-정몽준 연합을 통한 신당 창당의 시나리오가 가시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김덕룡 의원 탈당, 이부영 부총재 경선 출마 여부 주목

또한 한나라당내 비주류의 움직임도 관심사이다. 당장 김덕룡 의원, 이부영 부총재, YS의 대변인격인 박종웅 의원 등의 거취가 주목된다.

김덕룡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박 부총재처럼 경선불참과 탈당의 수순을 밟을 것이란 예측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박 부총재가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홀가분하게 경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 부총재까지 포함된 경선을 치룰 경우 박 부총재에게 2위 자리를 내 줄 우려가 크지만, 이제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해석이다.

김 의원의 한 측근은 27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당분간 더 당내투쟁에 주력하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관측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도 박 부총재의 탈당을 예상치 못한 전망이었다. 이제 새로운 상황에서 김 의원은 다시 한번 선택의 고비에 서게 된 셈이다.

이부영 부총재는 최근 이회창 총재 쪽에 많이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박 부총재와 김덕룡 의원에게 경선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또한 오랜 재야 민주화경력을 감안할 때 ≪박정희 전대통령 후광과 영남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박 부총재를 뒤따라 탈당하기에는 논리적 모순이 심각하다.

따라서 이 부총재의 경우는 탈당이냐 아니냐 보다는 경선 참여냐 아니냐는 선택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부총재는 26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박 부총재나 김 의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선 참여 문제를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워낙 이 총재 지지가 원사이드해서 경선 참여 자체가 남사스런 일이 될 수도 있다≫며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 ≪박근혜 폭탄≫으로 대선구도 예측불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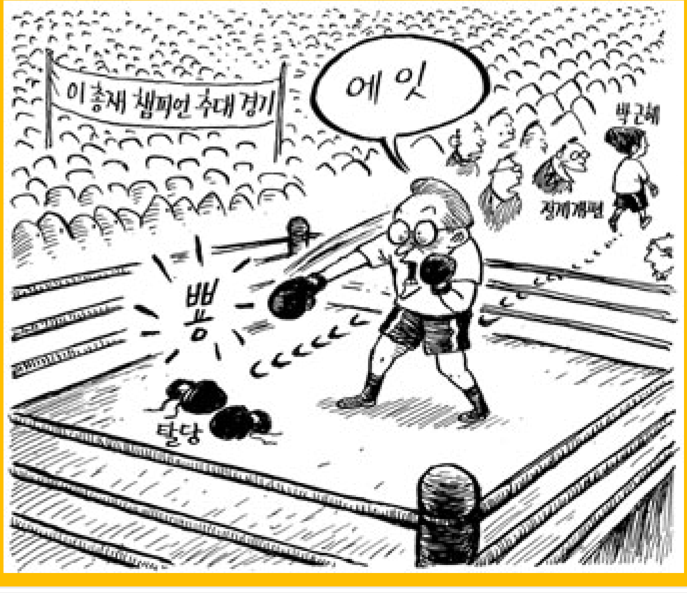
박종웅 의원의 거취도 관심사다. 박 부총재는 대선 전 집단지도체제 도입 요구가 좌절된 직후 박종웅 의원과 만나 밀담을 나눠 주목을 끌었다. 박종웅 의원의 행보는 YS가 정계개편에 동참하는지 여부, 즉 정가 일각의 관측인 신3김연대가 성사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중요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처럼 박근혜 부총재 탈당 이후 정치권엔 일파만파의 파장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총재 측은 탈당 파문 수습에 나섰고, 민주당 경선주자들 역시 영남표 분산이란 어부지리를 얻게 될까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박근혜, 정몽준, 이수성, 김윤환 등의 영남신당의 조기 가시화, 자민련까지 포함되는 내각제 신당 창당, 더 나아가 민주당 동교동계와 김덕룡 의원 등 한나라당 상도동계 일부까지 포함되는 대연합 등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도 많다.

≪박근혜 폭탄≫으로 대선구도 전체가 예측불허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정관용기자**
**프레시안 2002/02/28**




# 이회창 집권하면 내각제 개헌할 것

## 문성근, ≪장애인의 정치참여≫ 주제강연서 주장

영화배우 문성근씨가 ≪이회창 총재가 대통령이 될 경우 그는 집권 5년 이내에 내각제 개헌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이같은 주장은 박근혜 의원의 한나라당 탈당으로 내각제를 고리로 한 정치권 개편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문씨는 27일 오후 3시 광주장애인유권자연대가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주제로 연 특강에서 ≪이회창 이인제 대결구도로 이번 대선이 치러지면 이 총재의 승리는 뻔하다≫며 ≪이렇게 되면 금년 대선이 나라의 지도자를 국민이 직접 뽑는 마지막 선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광주지역 장애인 100여 명이 참석한 특강에서 문성근 씨는 ≪언론이 신문장사를 위해, 정치적 권력을 갖기 위해 악마의 주술같은 마케팅을 쓰고 있다≫며 ≪(71년 대선부터) 30년 된 지역감정과 색깔론으로 나라를 들쑤셔대고 있다≫고 수구언론의 보도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성근 씨는 또 ≪DJ가 미워도 국가와 민족의 미래와는 분리해야 하는데 수구언론은 정권과 민족의 미래를 구분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는 김대중 정권이 호남 소수파 정권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주빈 기자**
**오마이뉴스 2002/02/28**

# 현 시기 전략적 통일전선과 민족해방혁명의 이론문제에 대하여 (4)

대표집필자 최성원 / 2001년 11월 6일

## 순　서


1. 두 개의 전선 이외에 다른 전선은 없다
2. 그렇다면 지역통일전선은 무엇인가?
3. 전략적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투쟁에서 전술적 공동전선이 가지는 의의
► 4. 민족민주운동의 미숙성과 그로 인한 전술적 패배
► 5. 전술적 실패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6. 민족해방혁명의 승리국면에 대하여
7. 민족해방혁명과 조선혁명의 전국적 관점
8. 강고한 민족민주전선을 구축하는 전략문제에 대하여
9.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의 중요성에 대하여


## 4. 민족민주운동의 미숙성과 그로 인한 전술적 패배

우리들은 김대중 정권을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전략적 통일전선으로 견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할 뿐 아니라,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김대중 정권과 전술적 공조를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지적합니다.

전술적 공조는 전략적 통일전선과 전혀 다른 개념일 뿐 아니라, 전술적 공동전선과도 구별되는 가장 낮은 차원의 관계로 됩니다.

전술적 공동전선이 형성되려면 공동의 목적이 합의되어야 하지만, 전술적 공조가 실현되는 데는 공동의 목적이 합의될 필요는 없고 제각기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행동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공동의 보조만 맞출 수 있으면 그만입니다.

김대중 정권의 화해 · 협력성을 비난하면서 6.15 공동선언을 반대하고, 북측의 조국통일역량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민족통일전선에 감히 도전해 나서고 있는 국정원과 검 · 경찰 ≪공안≫집단, 이회창 패거리들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남북(북남)의 화해 · 협력마저도 반대하는 악질적인 반통일세력을 고립 · 타격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민족민주운동과 김대중 정권은 서로 추구하는 목적은 다르지만 공동의 보조를 맞출 수 있으며, 따라서 전술적 공조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전술적 공조는 남북(북남)의 화해 · 협력마저도 반대하는 반통일세력이 크게 위축되었던 6.15 공동선언 채택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의 시기에나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그 중대한 시기에 화해 · 협력을 추진하는 개혁세력과 공동보조를 맞추면서 국정원과 검 · 경찰 ≪공안≫집단, 이회창 패거리들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악질적인 반통일세력을 고립 · 타격하는 투쟁에 자기의 동력을 집중해야 하였고, 또한 국가보안법 개정을 주장하는 개혁세력과 공동보조를 맞추면서 반통일세력의 존립기반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투쟁에 자기의 동력을 집중해야 하였습니다.

위에서 말한 전술적 공조는 이러한 집중타격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반미자주화 운동의 전략과 전술에만 관성적으로 집중하고 있었고, 당면투쟁의 의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악질적인 반통일세력을 고립 · 타격하는 투쟁전술(전술적 공조의 전술)이 나올 수 없었으며 투쟁 자체가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이 지난 5월에 ≪두 개의 전선≫이라는 논문을 ≪긴급토론자료≫로 발표한 까닭은 그러한 긴박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집중타격점을 찾지 못하고 자기의 동력을 분산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사이에, 6.15 공동선언 자체를 반대하는 국정원과 검 · 경찰 ≪공안≫집단, 이회창 패거리들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악질적인 반통일세력이 되살아나 날뛰게 되었으며, 남북(북남)의 화해 · 협력을 추진해왔던 집권세력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북측의 조국통일역량이 남측의 친미예속정권을 어렵사리 견인하여 형성되었던 전술적 공동전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며, 북측의 조국통일역량이 남측과 해외의 통일지향세력들을 묶어 세우는 전략적 통일전선도 8.15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남측의 통일지향세력들에 대한 악질적인 반통일세력의 집중공격을 받고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기의 기회만을 노리며 도사리고 있던 악질적인 반통일세력은 제철을 만난 듯이 기어 나와서 국가보안법을 동원하여 전략적 통일전선을 파괴하려고 날뛰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집중타격의 호기를 놓치고 어물어물하는 사이에 전세가 뒤집힌 것입니다.

## 5. 전술적 실패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북측의 조국통일역량이 6.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통일정세의 질적 변화 속에서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은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남측에서 각계각층 통일지향세력을 6.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결집시키는 지역통일전선을 형성하는 당면임무에서 그 해답을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민족통일전선의 지역적 임무라고 부릅니다.

지역통일전선은 남측에서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고 따르는가 아니면 반대하고 외면하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통일세력과 반통일세력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는 전선입니다.

따라서 남측에서 형성되고 있는 지역통일전선은 남측의 민족민주전선보다 낮은 수준의 전선입니다.

6.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형성된 지역통일전선이 자주, 민주, 통일의 정치강령에 의하여 형성된 민족민주전선보다 높거나 대등한 수준의 전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민족민주전선과 지역통일전선은 성격과 임무가 서로 다른 전선이지만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겹쳐지는 부분집합에 대해서 우리들은 높은 수준의 전선역량이 낮은 수준의 전선역량을 ≪주동적으로 이끌어간다≫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철수 동지는 주동적으로 이끌어간다는 말을 ≪지도한다≫는 말로 대체하면서 전선이 다른 전선을 지도하는 것은 ≪변혁운동역사상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조직원리상으로도 그릇된 견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전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필리핀 민족민주전선(통일전선조직의 이름)은 신애국동맹이라는 낮은 수준의 통일전선조직을 주동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도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남측에서 민족민주운동이 지역통일전선을 주동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우리들의 생각은, 민족민주운동이 6.15 공동선언을 강령적 기치로 하는 지역통일전선을 부단히 확대 · 강화함으로써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통일전선을 확대 · 강화하는 데 복무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역통일전선을 확대 · 강화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남측의 통일지향세력들을 6.15 공동선언의 강령적 기치 아래 총결집시키는 조직 · 정치사업만이 아니라, 6.15 공동선언을 감히 부정하려는 국정원과 검 · 경찰 ≪공안≫집단, 이회창 패거리들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악질적인 반통일세력을 고립 · 타격하는 전투적 임무도 수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역통일전선은 민족통일전선에 속해 있는 구성부분이므로 지역통일전선을 확대 · 강화하는 것은 곧 민족통일전선을 확대 · 강화하는 것으로 됩니다.

민족통일전선을 주도하는 것은 북측의 조국통일역량입니다.

그리하여 북측의 조국통일역량이 남측의 다양한 정당, 사회단체들과 직접 접촉하고 교류하고 있지만, 남측 지역에서 각이한 조국통일역량을 지역통일전선으로 묶어 세우는 사업과 악질적인 반통일세력을 고립 · 타격하는 전투적 임무는 북측의 조국통일역량이 직접 남측 지역에 들어와서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측 지역에서 조국통일역량을 지역통일전선으로 묶어 세워 민족통일전선을 확대 · 강화하는 사업은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주동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내일 계속)